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제3365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 이대론 與 소멸" 2 현대차-도레이 '혁신 신소재' 개발 맞손 12

코스피(18일)	2634.70 (+50.52P)	코스닥	855.65 (+22.62P)
환율(달러당 원화)	1372.90 (-13.9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427% (-0.048%p)

중국産 재고떨이에... 배탈 나는 韓산업



美 대선 'D-200' 누가 돼도 '차악'

미국 대통령 선거가 19일(현지시간)로 D-200일을 맞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초점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고민하는 전형적인 '비호감 대결'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반 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또한 엇치락뒤치락 선두를 주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7~11일 미국인 10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오차범위(±3.3%) 내였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8일 전국 유권자 833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소폭 앞섰다.

바이든·트럼프, 초점전 승부 불구 70% "두 후보, 집권시절 도움 안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인기 경쟁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가장 덜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소가 이달 4~8일 미국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은 생활비와 이민 문제에서 국가에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절반에 달하는 미국인은 트럼프 전 정부가 투표권과 선거보안, 외교 관계, 낙태법과 기후변화에서 국가에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의 결점을 부각해 비호감 대결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약 20%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3당 후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반(反)트럼프 공화당원들은 신당 창당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선 기자 hsbun@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중국産 '전호후랑'

韓·美·日, 中과잉생산 우려 표명
"비시장적 경제 관행 극복 공조"
석화·철강 등 500여종 저가 공세
프리미엄 제품분야도 추격 거세

최근 국내 한 케이블 업체는 거래처로부터 제안서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상 풍력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지만,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저가 공세 탓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입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씩씩이 수주'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정부가 입찰 시 국산 부품 추가 비중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을 보호할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해저 케이블 설치 시 전력·통신망, 가스관 현황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헐값 공세는 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제품부터 각종 소비재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또 다른 한쪽에선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에서 추격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저가부터 차세대 고급 제품군까지 전방위로 압박받는 형국이다. 이른바 '전호후랑(前虎後狼)'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호후랑은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한화 '소형 SAR 위성'이 촬영한 두바이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4일 우주에 오른 국내 최초 민간 관측위성 '소형 SAR 위성'이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사진)을 18일 공개했다. 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이 전 송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야자수 모양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선명하게 보인다(사진 속 흰색 네모). 사진제공 한화시스템

들어온다'는 뜻으로, 끊임 없이 이어져 양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발(發) 공급 과잉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 효자였던 석유화학업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대부분 석화 제품의 국제 가격은 1년 새 30~40% 폭락했다.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철강재 수출량은 988만8000톤(t)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25.3% 급증했다. 900만 톤을 웃돈 건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저가 철강 제품의 직격탄을 맞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반덤핑 제소를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유통업계를 교란하고 있다. 초저가로 무장한 알테쉬는 한국 상륙 1년 만에 15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

모으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알테쉬의 공세는 영세한 업체들에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저가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싼 게 비지떡'으로 불리던 중국산 제품은 최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급부상 중이다. 저렴한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수준의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발 '헐값 공세' 피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

급권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압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방중 당시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국의 시장 진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중국의 무차별적인 국내 산업 침투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그룹 재건 나선 두산... 3년 만에 '모트롤' 재인수 추진

뺏겼 통해 유압기 제조사 인수 검토
업계 "매각주관사 선정작업 진행중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 있을 것"

두산그룹이 옛 계열사 모트롤을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매각한 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 부문과 민수 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 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두산뺏겼을 통해 건설기계용 유압부품 기업 모트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3월 말 두산의 부사장급 임원이 인수를 위해 직접 경남 창원에 있는 모트롤 본사를 다녀왔다. 이후 두산뺏겼 내부에서 인수 여부를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

연도	사건	관련사
1974년	설립	동명중공업
2008년	두산중공업이 인수	두산모트롤
2010년	두산에 합병	모트롤사업부문
2020년	두산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물적분할	모트롤
2021년	소시어스PE-웰투시 컨소시엄에 매각	
	인적분할	
2022년	방산부문(IPO 추진)	MNC솔루션
	민수부문(두산그룹에 매각 추진)	모트롤

졌다. ▶ 관련기사 6면
업계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두산의 공식적인 인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트롤은 1974년 설립된 유압기기 제

조기업이다. 2008년 두산중공업에 인수돼 두산모트롤이 됐다가 2010년 두산으로 합병돼 모트롤사업부문이 됐다.

두산은 10년간 모트롤사업부문을 주력 캐시카우 사업으로 키웠다. 매각 전인 2020년 모트롤의 영업이익은 571억 원으로 두산의 자체사업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의 비율이 16.76%에 달했다. 산업차량(11.79%)과 디지털이노베이션(4.9%)을 앞섰다. 매각당시에도 출자자들은 모트롤의 현금창출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빠진 두산그룹이 구조 조정의 칼을 빼 들면서 모트롤은 두산의 품을 떠났다.

두산은 2021년 모트롤 지분 100%를 사모펀드 소시어스PE-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4530억 원이었다.

모트롤의 새 주인이 된 소시어스PE-웰투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모트롤의 방산 부문과 민수 부문을 분할했다. 모트롤의 순자산 가치는 약 2285억 원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모트롤 인수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 이대로는 국힘 소멸할 것”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

與, 민생이 어렵다는 거 몰랐나
똥판지 공약 밀어붙여 총선 실패
국민신뢰 잃은 정당 몰락 당연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 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 버린 사회당의 길을 국민의힘이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랜 시간 황금을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

동개혁을 꺼내 든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 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 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유신 시대 때 만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김 전 고문과 본지와와의 인터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힘과 의지만으로 다스릴 수 없어
저출산 등 실질적 정책안 내놔야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뒤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 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아무런 전략 없이 똥판지같은 소리만 해다가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도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민주당이 이겼고, 세종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자극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투기꾼들이나 좋아하겠지,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진국형 국민을 두고서 옛날식의 똥판지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해서 실패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략이 없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은 현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에 대한 당의 노력이 없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했다. 출산율 문제도 전부 양극화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메니플레이트(조작: manipulate)’ 하려는 것과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 국민은 다스려질 수 없다.”

- 당 일각에서는 소통의 일환으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어스테핑을 했으면 지지율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도어스테핑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기자회견은 안 하면서 도어스테핑은 왜 하나. 선거 과정에서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하거나 스스로 설명해야 하지,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

- 국민의힘에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는 김재섭(도봉갑) 당선자 정도 아닐까. 다만 당 대표를 하면 이준석처럼 죽는다. 그렇지 않아도 김당선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기 목소리를 아주 확실하게 내주면 된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GA 기업신용평가로 더 큰 미래를 준비하세요!

기업신용평가란? 신용평가회사(NICE 등)가 기업에 대한 환경 등을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영회전 지표

3대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와 함께 합니다!

가·대·효·과

- GA산업에 대한 증권사·투자자·감독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소비자에 대한 기업신인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홍보효과
- 기업공개(IPO), 여신거래, 회사채 발행 등에 도움

문의 | 02-755-5025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현행 헌법 대통령 막강한 권한 유신시대 때 만든 틀 지금까지 내각제나 4년 중임제로 개헌을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각제만 가장 좋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구조 자체는 바뀌어야 한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개헌을 해야 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민주당은 개헌을 받을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저축銀 올해 추가 총당금만 3조+ α … 중소형사 ‘초비상’

Ⓢ 부동산 PF 구조조정 예고

“다음 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3월 말 연체율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A저축은행 고위 관계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에 대해 ‘구조조정’ 방안을 당겼다.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를 강화하면서 버틸 여력이 부족한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주 연체율 현장 점검 이후 내달 초 부실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공개되면 총당금 적립 수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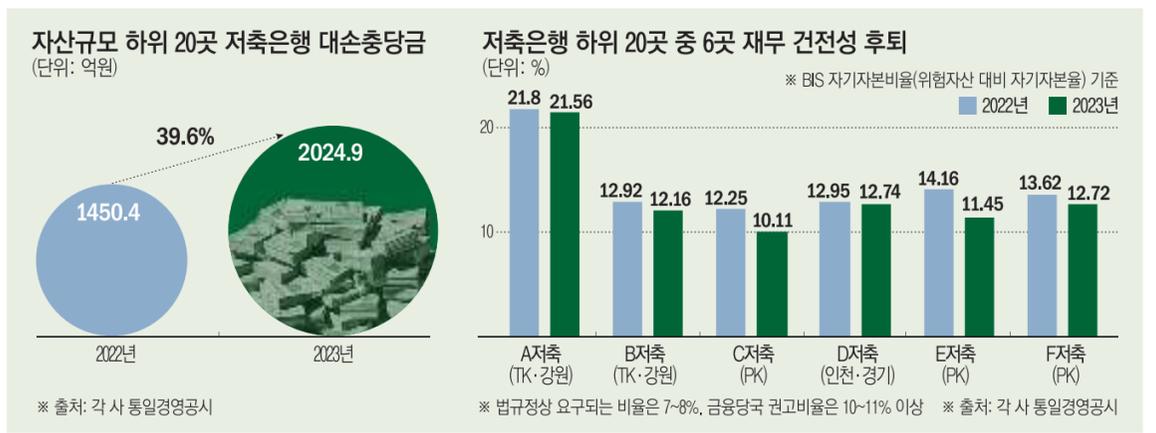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른바 이달 말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회수의문’ 분류를 추가해 대출 부실에 대비해 금융사가 쌓아둬야 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무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국 이달 말 부실 PF 기준 공개 대손충당금 2배 이상 확대 전망 소형사 증가폭, 대형사의 2.6배 “서민금융에 총당금까지 부담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15일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지난해 말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없고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조정, 정리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 원으로, 대규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저축은행도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총당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은 최대 4조8000억 원 규모의 PF대출 손실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최대 3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총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확대되는 대손충당금적립 부담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에 더 큰 타



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중소형 저축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하위 20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20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450억4000만 원) 대비 39.6%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4조64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84억 원)보다

15.3% 증가에 그쳤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대형 저축은행보다 2.6배가량 컸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에 대해서도 PF 대출 수준으로 총당금 규제가 강화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브리지론 PF 익스포저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에 영업구역을 두고 있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은 구역 내 여신 비율을 맞춰야 해서 구역 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수밖에 없고, 우량채권 확보를 못하니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각종 규제 속 총당금 적립까지 강화되면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혜영 기자 haha@

‘88클럽’ 1년만에 34곳 퇴출 5대 금융지주 계열사도 포함

재무건전성 탄탄한 은행 지표 6위 페퍼·9위 상상인도 아웃

우량하고 건전한 저축은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88클럽’이 있다. 2006년 8월 시행된 이 제도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저축은행 부실 위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튼튼한 은행’의 지표로 불리는 88클럽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79개 중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년보다 34곳이나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업권 건전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의미다.

18일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88클럽에 속한 곳은 41개로 집계됐다. 전년말(75개)과 비교해 34곳이나 탈락했다.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만 ‘튼튼한 은행’에 해당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 집단을 말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에 나선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 BIS비율은 지난해 모두 79개 저축은행이 8%를 넘겼다. 하지만 고정이하

여신비율 기준(8% 이하)에 맞는 저축은행이 75개에서 41개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8조387억 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였다. 이 비율이 7%대를 찍은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통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몸집이 큰 중대형 저축은행들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산규모 6위에 해당하는 페퍼저축은행(12.86%)과 9위에 해당하는 상상인저축은행(15.05%)의 이 비율이 지난해 8%를 넘어섰다. 5대 금융지주 계열사인 KB저축은행(10.11%)과 NH저축은행(8.85%)도 88클럽에서 퇴출당했다.

부실채권이 높아진 이유는 저금리 때 불티나게 팔았던 부동산 PF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대출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있어서다.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DB손해보험 DB생명	금융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반도체·IT DB아이텍 DB글로벌칩 DB Inc.
--------------------------	--	--

DB금융서비스 DB FIS DB메탈 DB월드 DB월드건설 DB커뮤니케이션즈

中 '헐값공세'에 K-기업 신음... "당장은 탈출구 안보여"

발목 잡힌 수출 효자기업

'낮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산 공습에 국내 산업계와 유통업체가 시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 가운데, 포화상태인 자국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글로벌 시장의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發)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와 협회 등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 불황이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생존을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후 대책이 마련되면 외부로 공개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응책으로는 사업재편과 설비 조정, 연구개발(R&D)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석유화학 산업의 기반인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2021년 93.1%에서 지난해 74%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증설을 지속한 결과다. 지난해 중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5000만 톤(t)을 돌파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늘어난 물량은 우리나라 등 해외로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내 수요가 부진한 데 따른 결과다. 김진홍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을 넘어 일부 제품에서는 순수수출국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역내 주요 수출국에 대한 경쟁도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차이나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6% 늘어난 179만 톤으로 집계됐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내 철강 판매가격(판가)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성장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업계도 중국발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계 업체들이 저가해저케이블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비단 국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석화·철강 '중 수출' 크게 줄고 오히려 값싼 중국산 유입 급증 태양광·해저케이블 등도 점령 알테쉬 등 유통업체까지 흔들려 석화업계, 정부와 생존전략 모색

역시 과잉 공급 유탄을 맞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615기가와 트(GW)로, 전 세계 생산량(740GW)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생산량에서 중국산 비중은 각각 95%, 90%로 나타났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전체 매출

의 30%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한화솔루션은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1분기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OCI홀딩스도 작년 말 미국 태양광 업체 큐빅PV와 체결했던 장기 공급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큐빅PV가 당초 계획했던 태양광 웨이퍼 생산공장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다.

중국발 저가 공세는 유통업체까지 뒤흔들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한 데 이어 사정권을 한반도까지 넓혔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88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테무의 MAU는 829만 명으로 알리 턱밑을 추격했다. 이 두 업체는 MAU 기준으로 쿠팡을 제외하고 국내 이커머스를 모두 제친 상태다. 게다가 알리는 한국 시장에 향후 3년간 1조4471억 원 투자를 예고했다. 투자 금액 중 약 2632억 원은 한국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쓰인다.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테무도 작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테무는 최근 지상파 방송 간접광고(PPL)를 한 데 이어 네이버에 배너, 검색광고를 시작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유승호 기자 peter@

전문가 진단

"中 대체 신시장 개척 수입처 다변화 시급"

'안미경중' 아닌 '안미경세' 필요

중국의 내수 침체에서 유발된 '헐값 공세'와 미·중 무역 전쟁 등 중국발(發) 복합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양명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초청연구위원은 "전 세계는 산업재편 과정에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 단계를 넘어 하이테크(첨단) 기술 제품과 같은 높은 기술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모든 산업 부문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어 우리는 미래 산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의 초격차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라며 "산업의 품목이나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침범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도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와 반한감정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게 되자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큰 중국 내 자산을 줄이고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중국에 있던 한국 기업 공장들이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시장을 찾아서 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측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식'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단순한 무역·통상 분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패권 경쟁"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기 어려운 지정학적·역사적·정치경제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대외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손실'을 외교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도 "미국과 중국 둘 다 한국과 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가"라며 "반도체만 예를 들어도 원천 기술 장비는 모든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외 투자 기업들의 40%, 전기·전자 산업 기업들 50%가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양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밸류체인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중국 '저가 공세' 잠식당한 한국 산업

- 석유화학**
 - 중국 지난해 에틸렌 생산능력 세계 1위 (5000만 톤파)
 - 국내 NCC 가동률 74%대로 하락
 - 일부 제품 순수수출국 전환
 -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비중 2010년 48.8% → 2023년 36.3% 감소
- 철강**
 - 한국의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 1년간 26% 증가
 - 국내 철강재 판매가격 하락

- 태양광**
 - 지난해 생산된 태양광 제품 10개 중 9개가 중국산
 - 태양광 제품 판매가격 하락
- 유통**
 -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초저가 상품 판매
 - 국내 월간 이용자 수 쿠팡 1위, 알리 2위, 테무 3위

'카피캣 짝퉁'은 옛말... 가전부터 車까지 존재감 키우는 중소기업

로보락, 국내 첫 신제품 론칭소 화웨이, 폴더블폰 점유율 1위 전망 반도체도 자금률·기술력 크게 높여

"로보락은 로보락과 경쟁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는 업체다. 경쟁사가 아니다."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로보청소기 신제품 출시 기념 론칭쇼에서 김서영 로보락 한국 마케팅 총괄은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중국 가전업체 로보락이 한국에서 신제품 론칭쇼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가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로보락은 이번 신제품에 '배짱 가격'을

내밀었다. 출고가는 184만 원으로, 이달 초 삼성전자가 먼저 출시한 로보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티' (179만 원)보다 비싸다. 그럼에도 로보락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지난해 로보락은 국내 150만 원 이상 하이엔드급 제품 시장에서 80.5%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과거 저가 공세 전략만 고집하는 중국은 사라졌다. 최근에는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술력과 자금력도 크게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전 산업군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화웨이가 신제품 폴더블폰 매트X5, 포켓2 등의 흥행으로 올해 1분기 시장 점유

율 1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처음으로 폴더블폰 시장의 포문을 연 삼성전자가 1위를 빼앗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업계 최초로 화면을 세 번 접는 트리플 폴더블폰도 올해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아래 기술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10~3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국당국은 최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자국의 주요 통신사들에 2027년까지 외국산 중앙처리장치(CPU) 사용을 중단하고, 자국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자체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에 끌려가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3대 신사업' 중 하나로 꼽고, 2009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중국 비야디(BYD) 등은 내수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때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조롱받던 샤오미 역시 최근 첫 전기 세단 'SU7'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00km로 테슬라의 모델3(600km)을 뛰어넘는다. 배터리 시장 역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을 늘리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내리면 '바이든' 올리면 '트럼프'... 표심 움직이는 '파월 파워'

대내변수 '연준 기준금리'

인플레이·금리유지, 바이든 '악재'
여론조사도 경제대응 질책 다수
트럼프, 연준 금리정책 예의주시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대통령 선거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는 등 상황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연준은 연내 기준금리 3회 인하를 시사했다. 시장에서 2년 넘게 진행된 긴축 정책이 드디어 끝났으며 환호했고 이는 뉴욕증시 랠리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준이 다시 '매파'적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포럼에서 "최근 지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확실한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모두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더 좁아지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에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플레이션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이다. 가계에선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카렌 다이언 하버드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정말 불운한 경우"라며 "바이든 정부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파괴적인 경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겠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 전망은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부유층 세금을 감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레로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

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가노믹스(트럼프 경제 정책)는 부자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복지"라며 "반면 바이든노믹스는 비용을 훨씬 낮출 뿐 아니라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감면을 취소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집권 기간 통화정책을 놓고 연준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그는 올해 유세에서도 연준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선거 개입을 지적하고 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현 정부를 흔들 수 있다.

경제 전문매체 인사이드는 "파월 의장이 킴메이커"라며 "그는 11월 경마(대선)에서 자신이 경주마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할 행동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를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두 개의 전쟁'도 백악관 캐스팅보트

대외변수 '우크라이나-이스라엘전쟁'

두 후보 모두 조기종식 이전 없지만
'바이든 유대인 옹호' 비난 여론도
트럼프, 맹목적 종전 유도 불안요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악시오스와 더힐 등 미국 정치매체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전쟁의 조기종식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쟁을 어떤 형태로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그만큼 2개의 전쟁이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것이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2개의 전쟁에서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 역할을 했다. 그만큼 바이든은 이곳을 러시아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더라도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며 바이든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개전을 주도한 러시아에는 전쟁 종식에 대한 명분을 쥐여주는 한편, 승산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일부 영토를 희생하더라도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의 경우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다만 바이든 대

통령은 너무 이스라엘 편만 든다는 일부 민주당 유권자의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당원은 바이든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이 미비했던 탓에 이번 전쟁이 발발했다"며 유대인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그는 지난주 "바이든과 민주당은 100% 팔레스타인 편"이라며 "바이든에게 투표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개의 전쟁과 함께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시작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봉쇄라인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 중심에 대만을 놓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안 관계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간 나라"라며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일부 과격한 발언을 줄이면서 중도파의 표심까지 겨냥했다고 폭스뉴스는 분석했다.

한편 악시오스는 "2개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위기도 언급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맹목적으로 전쟁 종식을 주도하고, 양안 문제에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미국의 세계적 입지는 지금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건강보장준

교보생명 건강보장보험군

★★★★★
주요 질병부터 치매까지 평생 보장하는
[평생건강보험]

★★★★★
최신 암치료까지 보장하는
[암보험]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맞춘
[종합건강보험]

★★★★★
합리적으로 뇌, 심장을 보장하는
[뇌·심장보험]

교보생명 건강보장보험군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확인하세요

교보생명 건강보장보험군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가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암보험계약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피보험자 가입날이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호려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호려회복)일로부터 부활(호려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피보험자 가입날이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활(호려회복)일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허인필 1-2404-13 상품이케팅팀(2024.04.02~2025.04.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2077호(2024.04.09~2025.04.08)

KYOBO
교보생명

현금 없는 세상 '성큼'... 한은, CBDC 실거래 테스트

〈올해 4분기〉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가상환경 기술실험과 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 진행한다. CBDC테스트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해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지폐와 동전과 같이 가치가 액면가로 고정되는 '법화(法貨)', 즉 법정화폐다.

성준이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 팀장은 18일 서울시 강남 삼성센터에서 진행된 '2024 블록체인 및 컨퍼런스(BCMC)'에서 "10만 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BDC 실거래 활용성 테스트가 11월 혹은 늦어도 12월에 착수돼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CBDC 설계모델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CBDC는 기관용 결제

올해 말 10만명 대상 진행 예정 설계 모델 4가지 형태로 검증 "미래 화폐 의미있는 실험 될 것"

자산으로 은행만 보유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I형통화(예금토큰)를 발행하게 된다. 성 팀장은 "이 두 화폐는 실거래 테스트에서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토큰으로 발행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II형통화(이머니토큰)와 III형통화(특수지급토큰)는 가상 실험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성 팀장에 따르면 I형통화인 예금토큰의 이체 과정은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다. 자행이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형태로 진행된다. 타행이체의 경우 이체를 보내는 은행에서 예금토큰을 소각한 뒤 이체를 받는 은행에 CBDC를 전달하면, 해당 은행에서 이 CBDC로 예금토큰을 새로 발행하는 '번 앤 이슈(Burn & Issue)'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 추진 일정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 2차례 발표(플랫폼 구축 사업자: LG CNS)
※ 가상 거래 실험 유관 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등

1 CBDC 활용성 테스트 플랫폼 구축 사업	2024년 1월~2025년 2월	2 연계 사업	2024년 4월~10월
가상환경 기술실험 (은행 및 유관기관)	2024년 7월~10월	3 실거래 테스트 (은행 참여)	2025년 1월~2월

※출처: 성준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 팀장 발표 자료

모델을 활용했다.

성 팀장은 이 이유를 전기차 개발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도 기존 법제도에 맞춰서 하드웨어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우선 엔진만 교체해 개발했다"면서 "(CBDC도) 법과제도 등이 아직 기존 예금 시스템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과 비슷하게 설계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CBDC 연구에서 분산원장과 토큰화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토큰화의 의미와 장점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토큰화는 화폐 개념에선 '크립토'에서 처음 제안한 새로운 그릇, 자산에 대한 거래기록(DB)과 자산 이전의 규칙과 로직을 통합한 '그릇'으로 정의된다"면서 "여기서 규칙과 로직이 스마트컨트랙트, 프로그램 가능성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통 지급결제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계층(레이어)과 데이터베이스(원장)가 분리돼 있어, 각 은행이 책임을 지고 고객의 계좌 정보 등이 들어있

는 원장을 관리한다. 반면, 분산원장은 여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정보가 한번 변경되면 모든 노드가 동기화돼,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인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토큰화는 즉시성, 투명성, 자동화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기존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한은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행사 개최식에 참석해 CBDC 활용성 테스트가 미래 화폐에 대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한국은행은 책무는 보수적이지만 국민과 기업, 정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목표는 올해 말 시작해서 내년까지 국민들이 미래 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은도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알짜회사' 다시 품는 두산... 에너지·기계·반도체 3대축 강화

3년만에 모터를 재인수 추진

모터 인수로 사업 재정비
밥캣과 '벨류체인' 완성도 ↑
부품·장비 활용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시너지 기대

"2024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전과 혁신을 화두로 삼고 새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신년화두로 던진 얘기다.

박 회장은 △소형모터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분야 사업 기회 확보 △가스터빈 해외 시장 개척 △건설기계 분야 신기술로 새로운 수요 창출 △반도체와 전자소재 분야 전방산업 트렌드 변화적 시대 대응 △협동로봇 경쟁자와의 격차 확대 등의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위기에 강한 승부사 경영인인 박 회장이 평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는 한 때 주력 계열사였던 모터를 재인수 작업이

두산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출처: 두산



시작이자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왜 두산은 모터를 선택했을까. 두산그룹은 △에너지(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기계·자동화(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반도체·소재(두산전자BG, 두산테스나)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있다.

두산그룹이 팔았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터를 다시 인수하는 건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을 위해 '벨류체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그룹 3대

업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부분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이 차지하는 두산그룹 매출비중만 51%에 달한다.

두산밥캣은 모터를 인수로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다. 모터를 건설·산업기계용 부품은 굴착기, 크롤러 크레인, 크롤러 드릴, 고소작업차, 크라샤, 스크린, 지게차, 트랙터 등 다양한 중장비에 적용된다. 두산밥캣의 주요 제품은 로더와 지게차, 미니 굴착기 등이다. 모터를의 부품을 두산밥캣의 다양한 장비에 활용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인 부품 조달처 확보와 더불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기계사업부분의 핵심인 두산로보틱스와도 유압을 활용한 로봇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북미시장의 수요증가로 매출(74억7600만 달러)과 영업이익(12억6500만 달러)이 각각 13%, 29.7% 증가했다. 북미에서만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모터를도 북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미 최대 건설기계전시회에 참여

해 밥캣(Bobcat), 존 디어(John Deere), CAT 등 북미 건설장비 톱티어 고객사들과 협력을 논의했다.

추가 M&A 가능성도 있다.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래를 위한 도약을 과감히 시도하려면 현재 닫고 있는 발판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투자는 미래를 위한 도전이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경쟁자에 앞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시장에서의 신뢰도 두둑다. 올해 회사채 시장을 찾은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 등 3곳 모두 완판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두산그룹 회사채를 사려는 기관이 많다"면서 "구조조정 모범생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두산그룹 합산 매출(19조1301억 원)과 영업이익(1조4363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13%, 28% 늘었다. 한 때 300%에 육박한 부채비율은 152.4%로 떨어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로나 지고 비만약 뜨더니, 빅파마 순위 출렁... 화이자 4위 추락

화이자, 백신 판매 줄어 매출 반토막
비만 치료제 매출 급성장 수혜社
노보노디스크, 5계단 올라 '성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료와 비만치료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의약품 매출 순위가 대거 바뀌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판매로 글로벌 매출 1위였던 화이자 4위로 하락했다. 반면 전 세계 시장에서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오젠폍과 위고비 판매량이 급증한 노보노디스크는 5계단 도약하

는 성과를 냈다.

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바이오 전문매체 피어스파마는 2023년 매출 기준 상위 20개 제약사 순위를 최근 공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2022년 1003억 달러(137조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압도적인 1위였던 화이자 585억 달러(80조3000억 원)를 기록해 매출이 41% 줄어 4위로 주저앉았다. 코로나19 백신(코마티)과 치료제(팍스로비드) 판매 감소에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한국화이자 제약의 국내 매출도 반 토막났다. 11월 결산법인인 한국화이자 제약은 2022년

3조225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2022년 12월~2023년 11월) 매출 1조6018억 원으로 50.3% 줄었다.

코로나19 백신에 힘입어 2021년과 2022년 매출 20위권 내에 진입했던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순위가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반면 테바(Teva)와 비아트리스가 각각 158억 달러(21조7000억 원), 154억 달러(21조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9위와 20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위는 852억 달러(117조 원)를 달성한 존슨앤드존슨으로, 전년보다 6.5% 상승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1위 자리

를 지켜온 강자다. 매출 상승을 견인한 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스텔라라'로, 지난해 108억6000만 달러(14조9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또 판상형 건선 치료제 '트렘피아'도 31억5000만 달러(4조3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글로벌 의약품 매출 2위와 3위에는 각각 스위스 로슈, 미국 머크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매출이 급성장한 빅파마는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개발사다. 4년 연속 17위였던 노보노디스크는 '오젠폍'과 '위고비' 매출 급증에 힘입어 12위까지 올라섰다. 노보노디스크의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31.5% 증가한 337억 달러(46조3000

억 원)였다. 지난해 11위에 오른 일라이 릴리는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켈바운드 덕분에 전년 대비 20% 상승한 341억 달러(46조8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상위 20개 제약사 중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유일하다.

노보노디스크 한국지사인 노보노디스크 제약은 지난해 국내에서 23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2190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 매출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암보험은 암보다 더 강해야 한다

점점 더 강해지는 암보험으로
고객의 든든한 안심이 되겠습니다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S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1837호(2024.3.29 ~ 2025.3.28)

또 시작된 巨野 독주...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민주당 농해수위 열어 단독처리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재발의
與 불참...5가지 법안 함께 처리
정부 "재원 막대... 개정안 유감"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야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

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이날 직회부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기존 양곡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된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었던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해' 기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도록 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 등의 이유로 쌀 가격이 폭등 혹은 폭락할 경우 '정부가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안과는 정부가 기준가를 정하도록 한 점,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것뿐 아니라 생산비 보전을 담은 게 다른 점이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문을 내고 양곡

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의 쏠림이 발생해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정영민 기자 oin@

민주당, 민생지원금·추경 제안... "물가 폭등 부추기나"

현금지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3%대 물가상승률, 더 오를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집행했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

도 높다. 또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당시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비대면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투자와 고용 감소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 부진에도 물가가 높다. 지난해 10월 3.8%였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둔화했으나, 2-3월에는

2개월 연속으로 3%를 웃돌고 있다. 취업자는 2022~2023년 2년간 이어진 고용 호조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재정지출로 소비를 늘리고 취약계층 소득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정지출 대비

소비 증가 효과를 26.2~36.1%로 추정했다. 13조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풀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3조3000억~4조7000억 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소비수요 증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충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지출하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굳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 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이투데이퍼낸서 **BRAW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첫 한국형 기동 헬기〉

〈500번째 국산 LNG 운반선〉

하늘엔 ‘수리온’·바다엔 ‘오리온’… K-수출 ‘쌍끌이 신기록’

K-방산·조선 ‘쾌속질주’

5년여 만에 5배 넘는 수출 성장세를 보인 K-방위산업이 올해 수주 200억 달러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10조 원을 투입하고, 첨단방산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40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본사를 찾아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들었다.

2019년과 2020년 30억 달러 수준이던 우리의 글로벌 방산 수주액은 2021년 72억5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뛰어오른 뒤 2022년 173억 달러, 지난해 140억 달러로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출 실적 기준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 10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확대 추세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이 2027년까지 9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도 우리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무역금융과 해외 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방산 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KADEX) 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2월 방산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수립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토대로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부

韓 방산 수출, 5년새 5배 성장
정부, 200억달러 수주 목표로
무역금융 10兆 투입 역량집중

LNG운반선 500척 수출 달성
초격차 기술 확보·인력해결 속도

장 분야에 연구개발(R&D) 자금 4000억 원을 투입해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첨단방산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290억 원을 들여 FA-50 개량 R&D를 진행해 북미 등으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리온과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소형무장헬기 등으로의 수출 품목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방산과 더불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선박사업에서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날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의 대기록을 세웠다. 1994년 첫 건조 이래 30년 만에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의 4분의 3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이다. 정부는 최근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Orion Spirit) 명명식에 참석해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 스피릿호는 1994년 한국이 처음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후 국내 조선소에서 수출을 위해 건조된 500번째 선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들었다 봤다… 이젠 김마저 쏠린다

원초 가격 상승으로 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반찬’인 조미김과 김가루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권 안에 드는 중견업체인 성경식품, 광천김, 대천김 등이 이날 들어 김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조미김 회사들은 원초 가격 급등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조미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30년까지 우리 해양 30% ‘보호구역’ 지정”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18일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 공급이나 기후 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2100년이면 해양생물 중 최대 8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지

해수부 ‘해양생물 보전대책’ 멸종 위기종 체계적 보호 나서

난 반세기에 상어·가오리가 71% 감소했으며 국내 갯벌 면적도 1987년 3203㎢에서 지난해 2443㎢로 감소하는 등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

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 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농촌 달리는 ‘왕진버스’… “아프신 분 오라이!”

농식품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시동

고령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을 위해 정부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연간 6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사업’을 도입하고 18일 충북 단양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가·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유병률은 2021년 기준 농촌은 34.5%, 도시는 24.8%다. 반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농어촌은 평균 23.5분, 도시는 16.9분으로 농어촌이 더 오래 걸린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8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간 300여 개 마을에서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등과 협력해 농촌 어르신들을 진료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보건서비스도 제공한다”며 “농촌 주민의 연령과 만성질환 등을 고려해 침·뜸 등 한방 진료와 내과·정형외과 등 양방 진료, 그리고 치과진료 등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이 열린 단양 매표소에서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발매는 환갑, 모내기하는 칠순… 허리 휘는 농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만4000가구(2.3%), 7만7000명(3.5%)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 및 전업 등의 영향으로 농가와 농가 인구 모두 줄었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포인트(p) 늘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198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 인구 비율인 18.2%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전체 농가인구의 36.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64만명, 50대 31만2000명 순이었다.

가구 유형은 2인가구가 57만4000가구(전체 가구의 57.5%)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는 1만4200가구(2.4%) 줄었다. 1인가구는 22만6000가구(22.6%)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전년보다 3만7000가구(1.7%) 증가했다. 전체 가구별(1~5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만 유일하게 늘었다.

경영형태별 농가 비율은 논벼 38.4%, 채소·산나물 22.1%, 과수 16.6% 순이었다. 전년 대비 기타작물(5.9%)은 늘었지만 논벼(-2.0%), 채소·산나물(-1.1%), 과수(-2.6%), 식량작물(-7.4%), 약용작물(-4.1%) 등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5%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1억 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4.2%로 0.4%p 늘었다.

여가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여가 인구는 8만7100명으로 전년보다 3700명(4.1%) 줄었다. 임가 인구의 경우 20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5800명(2.7%)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p 늘어난 52.8%로 50%를 돌파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ASML 울고 TSMC 웃고... 반도체 실적 엇갈린 까닭은

TSMC 순익 1년 만에 증가세
인공지능 개발 관련 수요 반영

시장 전환기, 장비 교체는 아직
ASML 노광장비 등 수주 61% ↓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하루 새 교차해 주목된다. 세계 반도체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해 '슈퍼울'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어닝쇼크'를 기록해 전 세계 반도체 종목의 동반급락을 촉발했다. 하지만 다음 날 공개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정 반대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해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ASML은 1분기 매출이 52억9000만 유로(약 7조8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주당순이익(EPS)은 3.3달러로 전년의 5.26달러에서 37% 줄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 유로로 시장 전망 54억 유로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전분기(92억 유로)보다 61% 감소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주문은 전분기의 56억 유로에서 6억5600만 유로로 급감했다. 이에 ASML 주가는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증시에서 6.68% 급락했다. 또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87%), Arm(-11.99%), AMD(-5.78%), 브로드컴(-3.49%), 마이크론(-4.47%), 인텔(-1.60%)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띠었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지난달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장세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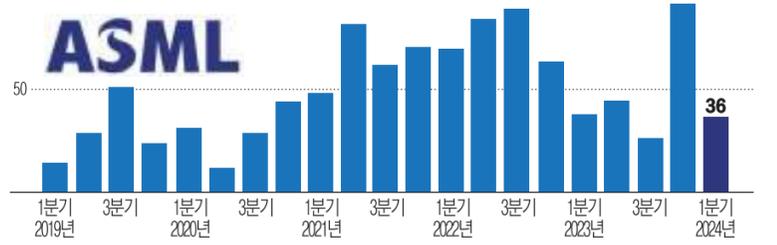
블룸버그는 ASML의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에 대해 TSMC, 한국 삼성전

자, 미국 인텔 등 주요 고객사들이 최첨단 장비 주문을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레드번애헤럴틱의 팀 슐츠-멜렌더에 널리스트는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예상을 밑돌면서 ASML의 내년 매출과 순이익이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TSMC는 18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순이익이 2255억 대만달러(약 9조 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 2149억 대만달러를 웃돈다. 또 순익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도체업계를 대표하는 양사의 실적이 엇갈린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TSMC는 현재 AI 개발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스마트폰 시장 침체 여파를 상쇄하기 시작했다.

ASML 신규 수주액 (단위: 억유로)



AI 칩 수요 급증에도 ASML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미국 투자 전문매체 모틀리프론은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AI의 새로운 물결에 앞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서두르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는 업황의 쇠퇴보다는 전환기적인 측면"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한국이 올해 4700억달러 규모 칩 생산 허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다만 ASML 장비 수요를

증가시킬 이런 프로젝트 중 다수는 아직 건설 중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ASML 본사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억 유로 규모의 특허 지원을 전격 약속한 것도 장기적으로 호재로 여겨진다. ASML은 임직원 중 40%가 외국인으로, 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타격을 받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사 해외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이진영 기자 mint@



일본 규슈·시코쿠 해협 규모 6.6 지진
일본 에히메현 우와지마에서 18일 경찰관들이 지진으로 발생한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14분께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부상하고 수도권 파열과 낙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해당 지역에서 현행 지진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진도 6'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자력발전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에히메현 우와지마에서 18일 경찰관들이 지진으로 발생한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 14분께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부상하고 수도권 파열과 낙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해당 지역에서 현행 지진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진도 6'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자력발전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엔저, 명품 사러 일본 간다

달러당 154엔, 34년 만에 최고
LVMH 매출 6% ↓ 日 33% ↑

일본 도쿄 명품 매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유럽 관광객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미국 달러화당 일본 엔화 가치가 154엔대로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아직 환율 차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일본 명품 매장을 겨냥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명품 매장이 늘어난 일본 도쿄 긴자 거리에 중국인뿐 아니라 유럽 관광객까지 모여들고 있다며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기 위해 일본에서 쇼핑하려는 명품족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증명하듯 1분기 루이비통을 포함 70여 명품 브랜드를 지닌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일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급증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매출이 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와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협업한 '태그호이어 카레라'는 미국 뉴욕(약 6500달러)보다 일본(약 5100달러) 매장이 약 1400달러(약 190만 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몇 개를 손에 거머쥐면 우리나라 돈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가의 컨설팅그룹 러셔리인스티튜트의 밀턴 페드라자 최고경영자(CEO)는 "명품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균등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낮은 가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환율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가격을 인상해온 만큼, 현지점에서 환율을 반영해 추가로 고객 구매비용을 늘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명품 매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던 2022~2023년 사이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도 엔저 현상이 지속하자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 틈을 노린 글로벌 명품족들이 속속 도쿄로 몰려드는 것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연준 변심에... 무너지는 亞 금리인하 기대감

트레이더들, 한국·태국·말레이 등
금리 인하 폭 작아지고 지연 베풀
외국인 亞 증시 이달 22억弗 팔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꺾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 통화화에 대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방어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아시아를 덜 '비둘기파'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트레이더들이 금리인하 기대감을 낮춘 국가로는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이들 아시아 국가가 금리를 유지하거나 낮추더라도 아주 작은 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례로 트레이더들은 향후 12개월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약 0.05%포인트(p) 인하하는데 베풀고 있다. 사실상 상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는 3월 말 제시됐던 0.25%p와 큰 차이를 보인다.

BNP파리바의 찬드레시 자인 투자전략가는 "미국에서 강력한 경제지표가 공개되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더 높게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한다는 테마가 다시 시장에 돌아왔다"며 "이상태가 지속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확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의 경우 6개월간 0.15%p 인하여 무게가 쏠린다. 이 역시 지난달 말 제시한 0.50%p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더 '파파'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부진에도 링깃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탓에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2025년까지 뒤로 미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체탄 아하야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예상) 횡수가 줄어들면서 아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전망도 조정했다"며 "금리인하 폭이 더 작아지고 개시 시점도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은 특히 금리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자금 유출도가 속하고 있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아시아 달러지수는 이달에만 0.8%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세로 향했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에만 22억 달러(약 3조331억 원)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에서 자금 유출이 많이 일어났다. 다행히 한국은 이 기간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세였던 MSCI 아시아 태평양지수도 이달 들어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롬바르드오디에의 이호민 수석 투자전략가는 "아시아 시장은 낮은 금리로 운영되고 에너지 수입과 외부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중동의 지정학적 충격과 금리 기대의 급격한 변화의 결합에 좀 더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양면태양광 관세 부활하나... 한화큐셀이 청원

조지아주에 25억弗 들여 공장 건설
백악관, IRA 확대 차원 긍정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입용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적용했던 2년간의 관세 면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 등 저렴한 아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큐셀은 "양면형 모듈 수입 급증으로 시장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회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분에

시작된 많은 대미 투자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퍼스트솔라와 수니바, 헬리엔, 실팜 등 미국에 공장 등 7개 태양광 제조업체도 한화큐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전체 태양광 패널 수입의 98%를 차지하는 양면형 패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IRA가 촉발한 역사적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

신한이 모든 순간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재생PC기부, 디지털금융교육
손주라 가르쳐주는 것처럼 쉽네~



한부모 취업 지원
엄마 사랑해! 우리 가족 화이팅!



신한 아름인도서관
언니랑 책 읽으니까 진짜 행복해~



위기가정 재기지원
여보~ 희망이 보여요!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동부터 청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눔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타이어〉

한타의 질주본능... “2027년 글로벌 톱5 타이어사”

한국 익스피리언스 데이 개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3년 내 글로벌 톱 5 타이어 제조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 공장 증설로 판매량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16일 ‘한국 익스피리언스 데이(Hankook Experience Day)’ 행사를 열고, 이러한 목표를 공개했다.

박정호 한국타이어 마케팅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은 “현재 한국타이어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 정도”라며 “미국과 헝가리에서 증설한 물량이 판매되고 매출로 이어지면 2026년, 2027년이면 세계 5 또는 4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미국(테네시) 공장, 헝가리(리칼마스)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투자 규모는 미국 공장 16억5000만 달러(약 2조2860억 원), 헝가리 공장 5억5000만 유로(약 8100억 원)로 총 3

3兆 들어 美·헝가리공장 증설중

연산 9700만개→1억1000만개

6년뒤 전기차 타이어 비중 70%

생산물량 전체 ‘아이온’ 공급

연구·개발 투자 아끼지 않을 것

조원이 넘는다.

두 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한국타이어의 생산 역량은 현재 9700만 개에서 약 1억1000만 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증설을 통해 미국 공장에서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PCLT) 700만 개와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100만 개, 헝가리 공장에서 TBR 85만 개가 늘어나는 것과 향후 물량 조정을 고려한 예상치다.

한국타이어는 이러한 생산역량 확충을 통해 판매량과 매출을 늘려 글로벌 타이어 기업 톱 5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타이어 전문 매체 ‘타이어프레스’ 집계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22년



16일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열린 ‘한국 익스피리언스 데이(Hankook Experience Day)’에서 박정호(가운데) 한국타이어 마케팅총괄 겸 경영혁신총괄 부사장, 이진영(왼쪽) 상품전략팀 상무, 김승현 EV마케팅팀장이 Q&A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매출액 기준 글로벌 타이어 업체 중 7위(62억4500만 유로)를 차지했다. 한국타이어보다 상위 기업은 △미쉐린(280억1800만 유로) △브릿지스톤(270억2800만 유로) △굿이어(194억5000만 유로) △스시모토(66억8200만 유로) △피렐리(66억1500만 유로) 등이다. 스시모토·피렐리와는 매출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톱 5 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인 ‘아이온(iON)’을 중심으로 신차용(OE) 타이어에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린다.

박 부사장은 “현재 신차용 PCLT 공급 기준으로는 약 30% 정도를 전기차 타이어로 공급하고 있다”며 “현재 수주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5~6년 뒤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70%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그

70% 전제는 아이온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30년 정도에는 전 세계 전기차 중에 약 11%, 8대 중 1대 정도는 아이온을 장착한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타이어의 연구개발비용은 약 202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2.27% 수준이다.

구분희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총괄 부사장은 “R&D 예산은 가능한 한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며 “저희 목표가 기술력, 상품력으로 글로벌 넘버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날 행사를 통해 본사인 테크노플렉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 테크노돔’, 테스트 트랙 ‘한국 테크노링’ 등을 소개하고 타이어 연구 기술력을 강조했다. 이민재 기자 2mj@

“미래차에 혁신 신소재 적용”... 현대차, 도레이 손잡았다

탄소섬유 1위 기업과 파트너십 경량화 소재 CFRP 등 공동개발 미래 모빌리티에 차별적 경쟁력

현대자동차그룹이탄소섬유및 복합소재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Toray) 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혁신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26년 설립된 도레이그룹은탄소섬유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재료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도레이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탄소섬유는 경량화, 강도 및 내열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춘 소재로 자동차, 항공

기 등 모빌리티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재훈 현대차 동차 사장, 송호성 기아사장과 송창현 미래차 플랫폼(AVP) 본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레이그룹에서는 닛타쿠 아키히로 회장, 오오야 미츠오 사장, 한국 도레이그룹 이영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으로 경량화

소재인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 등을 공동 개발해 모빌리티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상품에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차별적인 제품 경쟁력을 선보이고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창현 AVP본부 사장은 “모빌리티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

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의 차량 기술 노하우와 도레이그룹의 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오오야 미츠오 도레이그룹 사장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전동화,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및 소재를 개발해왔다”며 “현대차그룹과 함께 소재와 기술 혁신을 이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동남아 역지구 힘주는 CJ 대한통운... 닌자밴과 물류 강화

印尼 등 6개국 운송 추적 가능해 국내서 동남아 통관·배송 서비스

CJ 대한통운이 싱가포르계 주요 물류 기업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역지구(해외 고객이 국내외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 물류 사업을 본격화한다.

CJ 대한통운은 동남아시아 역지구 물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물류 기업 ‘닌자밴’과 통관·배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닌자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실시간 운송 추적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통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 대표 물류 기업이다.

CJ 대한통운은 회사가 보유한 글로벌 물류 역량에 닌자밴의 촘촘한 현지 배송



김태호(왼쪽) CJ 대한통운 CBE사업담당과 팡시양 닌자밴 CB 사업부장이 통관·배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CJ 대한통운

망을 더해 동남아시아 역지구 물류 시장을 공략한다. 국내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상품이 CJ 대한통운의 항공 포워딩을 통해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로 운송되면

각 도착 국가에서 닌자밴이 통관과 배송 서비스를 수행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역지구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고객사들은 더욱 편리하게 글로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젊은 소비자층이 두터운 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류 열풍이 확산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CJ 대한통운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지구 물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영호 CJ 대한통운 IFS본부장은 “해외 물류 기업들과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역지구 물류사업을 강화하고 초(超) 국경 택배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LS에코에너지, 초고압 케이블 공급 확대

싱가포르 이어 덴마크 176억 규모 LS전선과 협력...성장 모멘텀 창출

LS에코에너지가 유럽·아시아 등 전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모회사인 LS전선과 협력을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압 케이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덴마크에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8일 밝혔다. 220킬로볼트(kV) 급 지중케이블로 1300만 달러(약 176억 원) 규모다. 북해 ‘토르 해상풍력단지’와 연결하는 내륙의 전력망 조성에 사용된다.

LS에코에너지는 2017년부터 덴마크에 케이블 수출을 시작, LS전선과 함께 덴마크 초고압 케이블 시장 1위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전력청에 약 12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급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는 LS전선과 협력한 성과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전력 시장의 하나로 꼽히는 만큼 글로벌 전선업체 간 수주전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를 정부가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력 시장 규모가 더욱 커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사진제공 LS전선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초고압 케이블은 영업 이익률이 두 자리 수로 높은 편”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확대를 통해 실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S에코에너지는 LS전선이 1996년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했다. 현재는 유럽, 북미 등에 대한 수출이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베트남의 주요 수출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잠정적으로 매출 7311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 순이익 43억 원을 기록,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275억 원에서 7.4% 증가하고, 순이익은 -91억 원에서 흑자전환했다.

회사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고압 케이블 수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HD현오뱅크, 국내 첫 초임계 공법 바이오 디젤 생산

연산 13만톤 공장 상업 가동

HD현대오일뱅크는 연산 13만 톤(t)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전용 공장을 상업 가동하고 생산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산공장 내 1만2000평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연료다. 석유 기반 연료와 성상이 유사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바이오 디젤은 바이오 기반 연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연료 중 하

나로, 국내 의무 혼합 비율이 2030년에는 8% 수준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의 바이오 디젤 공장은 국내 최초로 초임계 공정이 도입됐다. 초임계 공정은 고온·고압 조건에서 촉매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다. 처리가 까다로운 비식용 원료도 투입 가능해 기존 공법 대비 식량 자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김민서 기자 viaieporlune@

‘수익성 부진’ 영실업… 대표 교체 카드로 반등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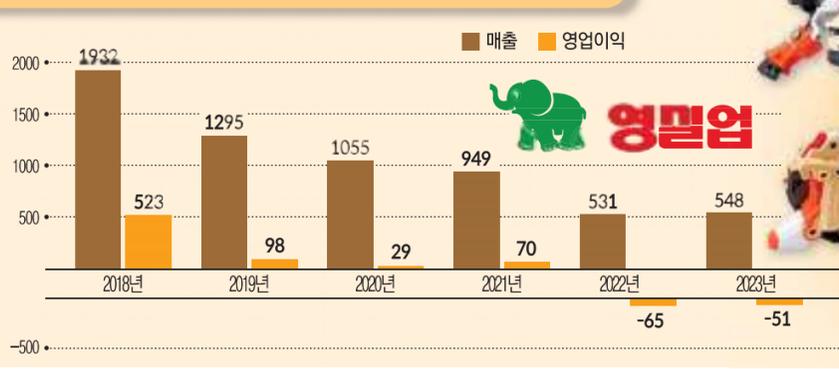
미래엔 인수 4년째 매출 반토막 완구 수요 감소…영업의 -51억 교육출판 시너지 실통치 않아 핵심IP 도봇·콩순이 등 리뉴얼

국내완구기업인 영실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견 교육출판그룹 미래엔이 인수하면서 종속회사가 된 지 4년만에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적자가 지속했다. 미래엔은 최근 영실업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실업은 지난해 별도기준 54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2년보다 3.3% 늘었으나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업이익의 경우 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 규모를 15억 원가량 줄였으나 손실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영실업은 1세대 완구기업으로 분류된다. 1980년 계몽사의 자회사로 시작해 외환위기 당시 경영권이 바뀌었다가 이후 창업주인 김상희 전 대표가 완구 부문을 인수, 2008년 재창업하면서 현재의 영실업이 됐다. 이후로도 변화는 있었다. 2012년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된 이후 2015년 주인이 다시 바뀌었고,

영실업 실적 (단위: 억원)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2020년 미래엔이 컨소시엄을 꾸려 영실업을 인수했다.

미래엔이 영실업을 인수하면서 교육출판 사업과의 시너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됐으나 작년까지 실적 흐름을 보면 실통치 못하다. 매출은 우하향한 데다 수익성도 악화해왔다. 영실업은 2016년 일본 팡이 애니메이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완구 제품 판권을 취득한 후 관련 완구를 유통하면서 2016~2018년 사이 1000억 원 언저리에 있던 매출이 2000억 원에 근접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완구 수요 감소를 비롯해 경쟁사 완구의 부각 등 여러 이유로 매출이 뒷걸음질 쳐 미래엔이 인수한 2020년에는 1055억 원으로 축소됐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인수 당시보다 절반 인 현 수준까지 낮아졌다. 매출이 줄다 보니 수익성도 나빠져 2018년 523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갈수록 급감했고 2022년에는 재창업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영실업은 매출이 소폭 늘는 가운데서도 급여와 광고비 등을 줄이며 판관비 절감에 나섰지만 76억 원에 달하는 무형자산상각비로 인해 영업손실 규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영실업의 실적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손실 부분이다.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작년 손실은 되레 38억 원이 늘어난 118억 원이 발생했는데, 거액의 기부금 지출에 따른 결과다. 영실업은 작년 적자 발생에도 전년보다 기부금 규모를 89.2% 늘려 50억 원을 지출했다. 영실업은 통상 기부금 규모는 2억 원

전후였으나 실적이 대폭 성장했던 2017년 1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49억 원, 2020년 27억 원, 2021년 24억 원, 2022년 27억 원 등 규모를 크게 늘렸다.

한편 미래엔그룹은 최근 영실업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카드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영실업 신임 대표로는 CJ올리브영 최고재무책임자(CFO), CJ오쇼핑 상무, 스튜디오드래곤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강철구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강 대표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실업은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핵심 지식재산권(IP)의 리뉴얼 △시장 내 포트폴리오 확장 △공격적인 자원 투자를 통해 축소·편향된 캐릭터 IP 시장 선도 및 확대 등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영실업의 핵심 IP인 도봇, 콩순이, 시크릿췌췌 등을 리뉴얼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힘스, 고부가 수주로 영업이익 3.8배 ↑ “선박 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로 고속성장”

저가 수주 밀면서 작년 실적 성장 매출 전년비 30% 늘어난 1891억 대형 연료저장 탱크 수요 기대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내고 고부가가치 수주로 3.8배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현대힘스가 조선 친환경 연료 저장 탱크의 무궁무진한 발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

2050년까지 이미 운행 중인 선박 외에 친환경 전환을 의무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디젤 엔진을 LNG,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의 연료를 활용한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연료 저장을 위해선 대형 탱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힘스는 선박용 탱크 시설을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힘스 관계자는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탱크사업 진출 위해서 모색 중”이라며 “각종 친환경 연료 저장에 필요한 탱크로 무궁무진하게 발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대힘스는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내면서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1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3.8배로 성장했다.

2022년까지의 저가 수주 물량 해소하고, 지난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선들인도를 시작한 영향이다. 조선업계 인력난에도 목표 납품량의 100%를 채웠다고 한

다. 현대힘스는 선박의 블록(부분)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동반 상승 중이다. 주요 고객사는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대형 조선사로 지속적으로 조선 기자재를 공급 중이다.

현대힘스는 세계적인 탄소저감 노력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커질 것을 대비해 탱크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세계 해운업계는 단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채택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무렵까지 국제 해운 산업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했다. IMO에 따르면 현재 해운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까지 이미 운행 중인 선박 외에 친환경 전환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디젤 엔진을 LNG,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의 연료를 활용한 엔진으로 교체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특히 연료 저장을 위해선 대형 탱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2조2000억 원 규모인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적용해 2027년 1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질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중동 위기가 찬물?... 반감기에도 미지근한 비트코인

반감기를 코앞에 둔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 고조와 미국 고금리 지속 가능성에 따른 매도 압력이 거세지면서 반감기라는 대형 호재 앞에 가격 변동 폭을 키우며 출렁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개당 90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달 8일 비트코인은 1억 원대를 회복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0일 9900만 원대로 거래를 시작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최근 중동 발 리스크와 미국 고금리 지속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감기를 당장 하루 앞에 두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맥을 못추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21시간가량 남았다.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 11월,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 7월,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 5월에 이뤄졌다. 한 블록당 보상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2012년에



美 금리인하 지연·중동위기 고조에 반감기 하루 앞 9000만원대 횡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도 둔화

“이전에도 반감기 이전 하락세 보여 반감기 진입하면 장기 상승 기대”

는 25개, 2016년 12.5개, 2020년 6.25개로 보상이 줄었다. 이번 반감기를 지나면 보상은 3.125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통상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지나 상승을

거듭해왔다. 1차 반감기인 2012년 11월 비트코인은 1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2차 반감기 당시 77만 원까지 상승했다. 3차 반감기인 2020년 5월에는 1089만 원까지 급등하며 4차 반감기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9000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 때문인지 최근 하락세는 반감기 기대감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포브스에 따르면 거버가와사키투자 고문 브렛 시필링은 “이번 비트코인 하락 요인은 크게 2가지”라며 “반감기와 관

련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격언을 시장이 일부 받아들인 것과 중동 갈등,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유지 우려 등 거시 환경 이슈”라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도 둔화했다. 같은 날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인 둔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그레이트캐일, 블랙록 등이 운용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비트코인은 83만7021개다.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비트코인은 2월 내내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단기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날 들

어서는 공급량 증가와 감소의 전환이 더 잦아졌다.

다만,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반감기는 원래 단기 약세, 장기 호재로 반감기가 발생하면 채굴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팔아야 운영이 유지되기 때문에 반감기 몇 개월 전부터 하락이 발생한 후 장기 상승한다”며 “반감기로 인해 하락할 틈이 없다가,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저하,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한 조정세가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반감기 직전 비트코인은 약 40% 하락했지만, 반감기 이후 1만9600달러까지 급등했다. 3차 반감기 직전에도 20% 하락하며 8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지만, 이후 6만90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에는 미국 현물 ETF 출시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 ‘반감기’가 중요한 마케팅 이벤트로 작용할 기대감이 있다”며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들도 반감기 관련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공정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그라비티·위메이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의 개발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개발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2일 전후로 해당 게임의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확률을 정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확률 조작이 의심된다는 관련 민원을

세종 청사서... 고강도 조사 예상 ‘실제와 다른 공지’ 사실로 밝혀지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웹젠·엔씨 조사대상 확대 가능성

제기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통상 공정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세종청사로 이관

해서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사들이 확률을 일부러 낮춘 의도성이 판명된다면 넥슨 때와 비슷한 취지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엔씨소프트도 대표작 ‘리니지M’, ‘리니지2M’의 이용자 1000명이 엔씨소프트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의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해



당 게임사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조사 착수만으로도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이나 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단 민원이 접수됐지만 조심스러운 것”이라면서 “넥슨에 이어 엔씨까지 조사를 받는다면 업계 파장이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스릴 넘치는 전투, 더 화려해진 그래픽... 넷마블 야심작 ‘레이븐2’ 내달 출격

게임대상 6관왕 레이븐 후속작 블록버스터급 MMORPG 변신 모바일·PC 크로스 플랫폼 지원

넷마블은 블록버스터 신작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레이븐2’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쇼케이스는 이날 오전 11시 레이븐2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다.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와 조두현, 주한진 디렉터가 게임의 개발 배경과 비주얼, 전투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를 소개했다.

전작인 ‘레이븐1’이 액션 MMORPG 장르에서 스토리를 강조해 호응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이븐2 또한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스토리 세계관을 계승한다. 레이븐1은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대한민국의 게임 대상 6관왕을 수상한 작품이다.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는 “원작의 액션성과 스토리 등을 바탕으로 블록버스터



급 MMORPG로 새롭게 선보이는 ‘레이븐2’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용자는 자신의 힘을 가진 특수대신 입대원으로 도미니온, 기간테스와 같은 전작의 인물과 대립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다. 또 게임 속 몬스터와 배경을 공포스럽게 연출해 정통 다크 판타지 콘셉트를 경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콘솔 AAA급 시네마틱 연출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레이븐2는 △디바이스캐스터 △버서커 △나이트레이저 △벵가드 △엘리멘탈리

스트 △디스트로이어 총 6개 클래스로 구성된다. 전투 구조는 클래스마다 다른 방향으로 설계됐다. 전투 시 각기 다른 처형 시스템 절단과 선혈 표현 등이 구현돼 차별화된 액션 쾌감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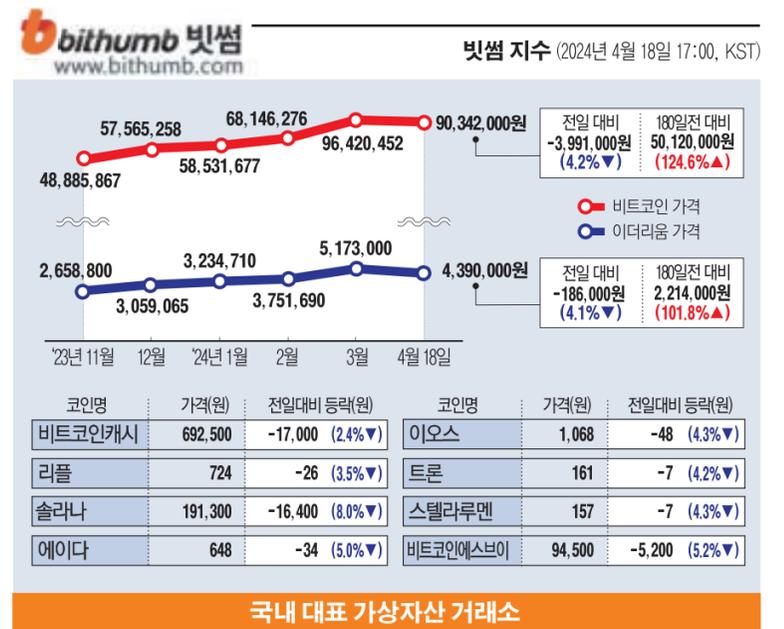
레이븐2에는 무기를 초월하는 악마의 힘을 부여한 ‘헤븐스톤’이 존재해 이용자는 헤븐스톤을 얻기 위해 전투를 이어가게 된다. 거래소를 운영해 헤븐스톤을 비롯한 이용자 간 아이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레이븐2는 5월 말에 모바일과 PC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 사전등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와 공식 사이트, 카카오키프로 참여 가능하다. ‘사역마 아이렐’·‘까마귀 단원 성의’ 등 채널에 따라 특별한 보상을 제공한다.

넷마블은 모달 차승원이 출연한 레이븐

2브랜드광고(TVC)를 차례로 공개하고 정식 출시 전까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

과 소통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요동치는 장바구니물가

과자·아이스크림·조미김까지... 고베 풀린 식음료값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치킨 프랜차이즈와 생필품업체가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가운데 식품업체들도 코코아와 설탕 등 원재료값 급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원초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민 반찬'으로 꼽히는 조미김 값도 올라, 밥상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롯데웰푸드는 내달 1일부터 코코아를 원료로 한 초콜릿류 건빵과 17종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에는 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 공문이 전달된 상태다. 건과 주요 제품을 보면 권장 소비자가 기준 △가나마일드 34g 1200→1400원 △초코 뽀빠로 54g 1700→1800원 △크런키 34g 1200→1400원 △ABC초코 187g 6000→6600원 △빈츠 102g 2800→3000원 △간쵸 54g 1200→1300원 △명가찰

떡파이 6입 4000→4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아이스크림 주요 제품으로는 구구크러스터를 기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티코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

이번 가격 인상은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시세 급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기준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코아 선물가격은 톤(t)당 1만559달러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t당 4663달러(1977년 7월 20일)인데 올해 1월 이를 47년 만에 경신한 이후 연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코코아는 지난 수십년간 톤당 2000달러 내외 수준의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가격이 오르더니 올해 초부터는 그야말로 가격이 폭등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인건비 등 가공 비용도 오른 상황이라 카카오 원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국내 유일



롯데웰푸드, 코코아값 폭등 탓에 내달부터 초콜릿류 17종 가격 ↑
성경식품·광천김 등 김 업체들 제품 가격 평균 10~20% 올려
"정부가 억눌러왔던 각종 물가 여러 악재 겹쳐... 인상 불가피"

한 업체인 롯데웰푸드의 초콜릿류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코코아 외에도 밀가루와 설탕의 원료인 원맥, 원당 등의 가격도 일제히 오름세 라빵·과자·라면 등의 추가 가격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라면·제과업계는 즉각적인 인상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오르면서 마른김 값도 요동칠 조짐이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중견업체 성경식품, 광천김, 대천김 등은 이달 들어 잇달아 김 가격을 올렸다. 앞서 성경식품은 1일 슈퍼마켓 등 일부 유통채널에서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0%가량 인상을 했다. 내달 중 대형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 판매채널에서도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광천김도 1일 대부분 품목 가격을 15~20% 올렸고, 이보다 한달 앞서 일

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했다. 대천김 역시 3월 김가루 등 제품 가격을 약 20% 올렸다. 이들은 "원초 가격 급등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동원F&B와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대기업은 가격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원재료 부담이 커지면 이들도 인상카드를 들 수밖에 없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년 마른 김(1속) 중도매가 평균 판매 가격은 1만440원으로 전년(6610원) 대비 57.9% 올랐다. 평년(6270원) 대비 66.5% 상승한 값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그간 가격인상 요인이 많았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동참 요청에 따라 억누르고 있었다"면서 "향후 여러 악재가 겹치면 결국 대부분 업체들이 가격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역대급 할인, 물가 잡는다"... 고베 조이는 유통업계

최근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유통업계가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4·10 총선 이후 그동안 억눌려 왔던 식품,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만큼 대량 매입, 직소싱 등을 통해 가격 낮추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9일부터 먹거리, 생필품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가격 역주행' 행사를 시작한다. 이마트의 가격 역주행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역주행'으로 고객 혜택을 늘린다는 의미를 담은 연중 프로젝트다. 직소싱,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60개 품목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켈로그 콘푸로스트·체스 초코(230g)'를 각 1980원에 판매한

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 100g당 약 26% 저렴하다. 'CJ명가 재래김·파래김'은 기존 16봉에서 20봉으로 늘려 1봉당 가격을 10% 이상 낮춘 5990원에, '패밀리 샐러드(350g)'는 전 채널 최저가인 2980원에 각각 판매한다. 주기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 값도 낮췄다. '케라시스 클리닉 샴푸·컨디셔너 5종(1000ml)'도 38% 할인한 각 4900원에 제공한다.

롯데마트도 내달 1일까지 2주간 창립 행사 2탄 '앵콜 더 큰 세일'을 진행한다. 반값 축산, 델리, 생활용품, '원플러스원(1+1)'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계획이다. 먼저 24일까지 1주간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미국산 찹갈비

이마트 '가격 역주행' 행사 시작
샐러드 등 60개 품목 최저가 판매
롯데마트 '앵콜 더 큰 세일' 진행
반값 축산·1+1 프로모션 선배
홈플러스, 치킨 품목 저렴하게
부사 사과 30% 할인 혜택 제공

(100g·냉장)'와 '미국산 LA갈비(100g·냉동)'를 행사 카드 결제 시 각각 2290원, 2490원에 선보인다. 1+등급 이상 '지리산 순한 한우' 전품목은 옐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 판매한다. '호주산 와규 윗등심(100g·냉장)'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3990원에 선보인다. 제철 채소와 수산물의 경우 '순창참두릅(220g·팩)'은 9990원, '다다기오이(5입)'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3990원이다. 러시아산 '대게(100g·냉장)'는 행사 카드 결제 시 반값인 3495원에 판다.

홈플러스는 24일까지 생닭·간편식·델리 등 각종 치킨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치킨의 봄' 행사를 연다. 당당치킨 4종은 6990원부터 선보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

로는 '당당 두마리옛날통닭(팩)'은 19일까지 4000원 할인, '대짜 핫스파이스 후라이드치킨(팩)'은 마트에서 20·21일 양일간 3000원 할인된 9990원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각종 수입과자 및 해외 식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선보이는 '월드푸드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또한 24일까지 '12Brix 유명산지 부사 사과(4·7입)'를 농할쿠폰을 적용해 30% 할인하는 등 신선식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커머스도 물가 안정 대열에 동참한다. 쿠팡은 내달 7일까지 가정의달 행사를 열고 두유, 홍삼 등 식품을 최대 78% 할인 판매한다. G마켓은 21일까지 '봄철별미대전' 프로모션을 열고, 봄 제철식품부터 날들이 음식, 보양식 및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모아 최대 47% 할인한다. 문현호 기자 m2h@

日 맥주 인기 따라잡는다... K-맥주 마케팅 사활

작년부터 아시아 맥주 재약진
일본 맥주 수입량 103% 급증
국내업체, 제품출시 등 열 올려

수입산 맥주의 기세가 꺾이는 와중에도 일본맥주 수입량이 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맥주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일본맥주 견제에 나섰다.

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량은 4만8321톤(t)으로 전년 동기(6만3695t)보다 24.1% 감소했다. 금액만 봐도 1분기 수입액은 4515만 달러로, 작년 동기 5627만 달러보다 19.8% 줄었다. 수입맥주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일본산만은 약진했다. 같은 기간 일본맥주 수입량은 1만7137t으로, 전년 동기(8422t)보다 103.5% 급증했다. 이

로써 일본맥주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국의 최대 맥주 수입국이 됐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수입량의 약 35%다. 뒤이어 중국(5926t), 미국(5223t), 네덜란드(5153t), 폴란드(3066t) 순이었다. 일본맥주는 '노재팬(No Japan)' 운동 여파로 수입량이 급격히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반(反)일본 정서가 사그라들었고, 일명 '왕뚜껑 거품 맥주'로 유명한 아시아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이 인기를 끌면서 수입량이 다시 회복했다.

이에 질세라, 국내 업체들은 맥주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대적 마케팅에 돌입했다. 오비맥주는 최근 생맥주 신제품 '한맥엑스트라 크리미생(生)'을 출시하고 여의도IFC몰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간 팝업스토

어에는 약 2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주력 제품 카스의 경우, 서울 올림픽공원 에서 열린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 진출전·결승전 현장에서 소비자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며 MZ세대를 공략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작년 출시한 신제품 '크러시'의 시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K리그 축구단 'FC서울'과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에서 크러시를 알리고 있다. 성수기를 앞두고 크러시 모델 카리나와 함께 한 두 번째 광고도 최근 론칭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향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TV 등을 통해 모델 카리나와 함께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고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파리바게뜨, 필리핀 마닐라에 1호점 오픈

작년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 체결
해외 11번째 진출... 'SM 몰' 입점

SPC그룹은 필리핀 마닐라에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1호점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지역의 유력 기업인 '버자야 푸드(BERJAYA Food Berhad)'가 필리핀에 설립한 파리바게뜨 필리핀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완성했다.

파리바게뜨의 해외 11번째 진출국인 필리핀은 인구 1억2000만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 국가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진출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필리핀 1호점은 필리핀 최대 규모이자, 수도 마닐라의 대표 쇼핑몰인 SM 몰 오브 아시아(SM Mall of Asia) 1층에 90석 규모를 갖췄다. 프리미엄 유럽풍 베이커리 콘셉트로 목재 소재를 활용,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다.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를 위해 그랩&고(Grab&Go) 콘셉트를 적용, 매장 밖에 별도 키오스크 데스크를 갖춰 편의를 더했다.

파리바게뜨는 필리핀 대표 식재료인 '우베(보라색 고구마)' 접목 제품과 필리핀 국민빵으로 불리는 '엔사이마다(Ensaymada)'를 재해석한 '순수 우유 크림 엔사이마다' 등을 필리핀 한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산은,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 설명회에 따르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2025년부터는 기말 현금에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추산 결과 올해 태영건설의 영업현금흐름은 -2191

억 원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3715억 원으로 늘어난다. 투자현금흐름 역시 올해 -386억 원에서 내년 986억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말현금은 올해 267억 원에서 내년 4551억 원, 2026년 5265억 원, 2027년 6247억 원, 2028년 7618억 원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은 “2027년 말 현금을 감안하면 출자 전환 후 잔여채권(5122억 원)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손익 역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매출액은 올해 2조8505억 원에서 2025년 2조2473억 원, 2026년 1조6983억 원으로 감소세가 예상된다. 2027년 2조277억 원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부채비율 200%대로 감소 전망 2027년 잔여채권 상환 가능 산은 “30일 의결·실행 협조를”

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당기순이익이 올해 198억 원, 2025년 599억 원, 2026년 393억 원, 2027년 402억 원, 2028년 89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산은은 아울러 대규모 자본확충으로 올해 말에는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내년에는 부채비율도 200% 수준으로 감소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부채비율은 올해 529.6%에서 내년 240.6%, 2026년 209.1%로 줄고 2027년에는 196.6%로 2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 대주주 감자와 자본 확충으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기존 41.8%에서 50~60%로 높아진다. 대주주 감자와 출자 전환 등을 거치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은 60.1%, 금융채권자의 지분율은 36.0%가 된다. 향후 보증채무(태영건설 채권자가 부담하는 손실)가 현실화되고, 해당 채무가 출자 전환되면 티와이홀딩스 지분율은 50.6%로 낮아지고 채권단 지분율은 47.0%로 오른다는 것이 산은 추산이다.

산은 관계자는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은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속법에 의한 구조조정 모범사례 마련의 의미가 있다”며 금융채권자들이 기업개선계획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캐피탈, 호주·인도네시아 진출 ‘착착’

호주 7월 부분 영업 개시 예정
인니 금융사 인수작업 마무리
내년 4월부터 본격 현지 영업



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4위인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 및 ‘신한 인도네시아’와의 삼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자금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영업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리스를 비롯해 여러 신상품을 출시해 현지 현대차그룹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도 현지서 선보인다. 딜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견적 산출과 심사 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새롭게 운영하고, 디지털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분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뒤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차량 구매 시 전속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현지 고객들을 위해 각 차량에 맞는 최적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상품은 물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만기 시점까지 유예해 월 할부금 부담을 낮춘 ‘잔가보장형’ 상품이나,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남은 할부 기간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치형’ 상품 등 고객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

목진원(사진) 현대캐피탈 대표는 “두 국가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상품들과 서비스, 업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준비 중”이라며 “현대캐피탈이 글로벌 소비자 금융 시장에서 ‘금융한류’, ‘K-금융’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jsw@

현대캐피탈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전날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를 인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회사는 후속 작업을 통해 해당 법인을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가칭)’로 탈바꿈시키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대캐피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과 선진 디지털 금융을 결합해 현지 고객들을 적극 공략



하나은행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훈(오른쪽 첫 번째)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과 노다 스미트르스트(여섯 번째) 상무 등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하나銀,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시행

하나 시니어라운지도 문열어

하나은행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하고 금융권 최초로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집행 전문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컨설팅 △유언장의 보관 및 집행 △유언대용 신탁 또는 유언장 작성 없이 상속을 맞게 된 상속인들을 위한 유산정리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후측방충돌 경고장치·HUD 장착뎀 車보험료 최대 12% 할인

6월 1일 계약부터 적용



현대해상은 업계최초로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에 후측방충돌 경고장치주와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추가하면 최대 12%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이를 위해 개인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약상품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1일 이후 책임게시되는 계

약부터 적용된다. 최근 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다

양한 첨단안전장치가 신규 개발돼 출시되고 있으나, 보험상품이 일부 장치에만 해당돼 첨단안전장치의 다양성을 보험료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할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과 더불어 상품의 운영방식도 개선됐다.

김재은 기자 dove@

수출입銀, 개도국에 EDCF 청년 전문가 34명 파견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13개 개발도상국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을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

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년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선발한 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해외인턴 프로그램이다. EDCF는 올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 지역전문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13개 EDCF 해외사무소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의 ODA(공적개발원조) 전문가로 육성될 예정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신한銀 “사업자대출 비교하고 비대면 대출을”

5개 금융사 8개 상품 비교 서비스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을 비교해보고 선택한 대출상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신한 사업자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 사업자대출비교서비스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객몰입’ 관점에서 고객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출시한 서비스다.

기존에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신한 SOL(솔)뱅크’에서 5개 금융회사(신한은행, 케이뱅크, 신한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BC카드)의 8개 대출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한카드·OK저축은행을 추가해 7개 금융회사 10개 대출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출시 서비스에서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보증서연계



대출상품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 및 사업자 고객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 및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금의 2%(최대 10만 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날개 돌친 KP물... LG전자 1.4兆 달러채 조달 '이상無'

민간기업 발행 활발

이달 8일 신한은행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5억 달러(약 6770억 원) 규모의 외화후순위채(Tier 2)를 발행하기 위한 수요 예측(북빌딩)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은행의 기초체력이 탄탄하고 신용 평가도 좋아 흥행 자신감이 있었지만, 워낙 불안한 시기에 발행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이 시작되자 불안은 환호로 바뀌었다. 28억 달러의 몸짓돈이 물려들었다. 덕분에 가산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 국채 대비 14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췄다. 최초제시금리(IPG, 이니셜 가이던스)는 175bp였다.

국내 민간 기업들이 외화채권(KP) 발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장에서 "없어서 못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중동발 전장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

IB에 3·5년물 채권발행 맡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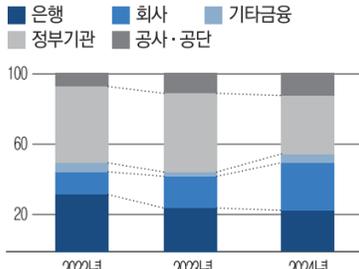
16일 하나銀·17일 현대카드 각각 6억弗·5억弗 규모 확정

앞서 수은·SK하이닉스 등 규모 늘리고 낮은 금리 발행해 국내기업 차별화된 위상 반영

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차별화된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로이터통신은 LG전자가 올해 달러채권 발행을 통해 최대 10억 달러(약 1조37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텀시트(주요거래조건서·term sheet)에 따르면 LG전자는 투자은행들에 3년 및 5년 만기 달러채권 거래를 위한 작업을 맡겼다. 텀시트를 보

신용그룹별 KP 발행 비중 (단위: %, 발행 총액 기준)



* 2024년은 4월 12일까지 발행 확정 총액 기준
* 출처: NH투자증권

면 3년 만기 채권에 대한 최초 제시 금리(Initial price guidance)는 3년 만기 국채에 135bp를 가산한 수준이고, 5년 만기 채권의 경우 5년 만기 국채에 150bp를 더한 수준이다. LG전자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조달할 현금을 투자, 만기 채권 연장 등 일반적인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다. 5년 만기 채권은 지속가능채권(sustain-

able bond)으로, 조달 자금은 녹색 및 사회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저금리에 외화채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간기업 외화채들이 완판 행진을 잇고 있다. 하나은행은 16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진행한 북빌딩(수요예측)을 통해 6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확정했다. 가산금리는 3년물과 5년물 각각 동일 만기의 미국 국채금리에 70bp, 78bp 더한 수준이다. 최초제시금리는 3년물 100bp, 5년물 110bp였다.

현대카드는 17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진행한 북빌딩을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RegS) 발행을 확정했다. 북빌딩 개시 후 한 시간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흥행에 힘입어 현대카드는 가산금리를 동일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135bp 더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최초제시금리 대비 35bp 절감

한 수치다.

이들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20억 달러), SK하이닉스(15억 달러), 한화토탈 에너지스(4억 달러), 우리은행(7억 달러), 미래에셋증권(6억 달러) 등이 계획한 것보다 발행금액을 늘리거나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스프레드 수준이 과거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만큼 기업별로는 연내 조달 전략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미 국채 금리에 1% 이상 가산금리가 형성되는 한 국물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올해 민간기업의 외화채 발행도 활발하다. 올해 들어 일반 민간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비중은 54%에 달한다. 2022년과 2023년만 해도 각각 49%, 45%였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신용)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희민 기자 hihello@

<유가 환율·금리>

'新3高시대' CD금리 상품에 뭉치돈

한달간 '코덱스CD금리액티브' 거래대금 8兆 돌파 ETF 선두

대내외 악재에 증시 변동성 확대 매일 복리 주는 단기성상품 인기

고유가, 고회율, 고금리로 불리는 '3고(高)'에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의 거래대금은 8조817억 원으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중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다. 순자산총액 또한 7조 원을 돌파해 국내 ETF 중 1위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에금증서액티브(합성) ETF"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랐다. 같은 기간 이 ETF의 거래대금은 8689억 원이다. 올해 2월 상장해 CD금리 ETF 중 후발주자인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 유입도 거세다. 개인투자자는 KODEX CD금리액티브(합

성) ETF와 TIGER 1년은행양도성에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각각 1885억 원, 326억 원 순매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위축,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자,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CD금리 상품을 투자처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올해 3회 이상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두 ETF는 모두 CD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이다.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또는 CD 91물의 하루치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상쇄할 단기성 상품으로 인기를 끄는 셈이다.

주당 가격이 높은 대신 호가 등락률 부담이 적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였다.

한편 단기성 상품들이 인기를 끌자,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날 KB증권은 KB KIS CD금리투자상장지수증권(ETN)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CD 3개월물의 성과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어피니티, 락앤락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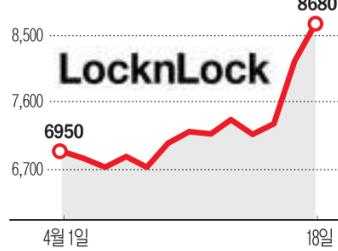
잔여지분 30% 취득하면 상폐 비상장사 전환 체질개선 의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락앤락의 지분 30.33%를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7일간 락앤락 보통주 1314만112주(발행주식 총수의 30.33%)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어피니티는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데 성공하면 즉시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어피니티의 락앤락 지분율은 69.64%다. 어피니티는 2017년 락앤락의 경영권을 인수해 경영 개선을 시도했지만,

락앤락 주가 (단위: 원)



인수 이후에도 락앤락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상장폐지 후 비상장사로 전환해 경영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어피니티는 공개매수 응모율과 관계없이 응모된 주식 전부를 매수해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1149억7598만 원이다.

공개매수 사무는 NH투자증권을 통해 볼 수 있다. 락앤락 주주는 NH투자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휴대폰에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어피니티의 락앤락 공개매수가 너무 낮아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락앤락의 기업가치를 드러내는 주가는 과거 1주당 최대 5만 원도 넘겼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3만 원 선을 유지하던 락앤락 주가는 어피니티 인수 후 중국산 저가 제품들과의 경쟁력 약화로 주가 내리막길이 심화했다. 10년 전 락앤락을 매입해 장기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의 경우 공개매수가 매입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편 락앤락 주가는 전날 11.6% 급등하고 거래량도 전 거래일 대비 12배 가량 올라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락앤락은 6.11% 오른 8680원에 마감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행동주의펀드, 기업·주주에 장기전략 제시해야"

기업·행동주의 상생·발전 간담회 책임감·전문성 있는 주주활동 강조 대통령실 법률수석 기용설엔 '침묵'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기업과 주주들에게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주행동주의 기관과 기업,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 기관의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주총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

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 의견결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대통령실 법률수석' 기용설에 묵묵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NH證 '드림팀 목표전환형랩 1호' 출시

NH아문디·BNK·토러스 전략 합쳐

NH투자증권은 'NH 드림팀 목표전환형랩 1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NH 드림팀 목표전환형 랩 1호'는 복수의 자문기관의 운용전략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NH투자증권 랩(Wrap) 운용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문사별 균등 배분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절해 목표를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중·소형주 종목발굴 능력과 심층적인 리서치역량을 통해 검증된 운용능력을 보유한 NH·아문디자산운용과 주도주 투자 및 섹터 로테이션에 강점인 BNK자산운용, 반도체·IT 및 성장주 투자에 강점인 토러스자산운용의 자문을하



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자문사별 투자 비중을 조절해 목표를 달성한다. 각각의 강점을 지닌 복수의 자문기관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기존 자문형랩의 개별 리스크를 상쇄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NH 드림팀 목표전환형랩 1호의 전환수익률은 7%로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김효숙 기자 ssook@

집값 회복세 보이자... 2030 “내 집 마련” 시장 앞으로

3월 서울 집합건물 매수인 비중 30대이하 34.7%...올해 첫 증가 생애 첫 집 매수 비중도 59.1% 두 달 만에 다시 오름세 반전

집값 바닥론에 특례대출 확대 “청년층 매수세 당분간 늘 듯”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마련에 나선 2030세대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집값 회복세가 포착되자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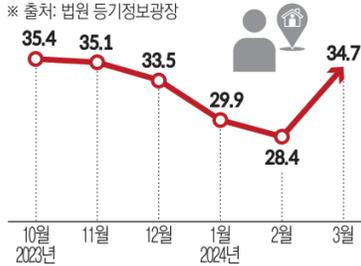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3월 기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34.7%로 집계

됐다. 3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 신청 건수는 총 8822건으로 이 중 30대 이하는 3063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서울 내 2030세대 매수 비중 증가는 올해 처음이다. 올해 2월 청년층 매수 비중은 28.4%(총 1만766건 중 3062건)로 폭 떨어졌다. 청년층 매수 비중은 1월에도 29.9%(9033건 중 2700건)로 1월과 2월 모두 30%에 못 미쳤다.

하지만 3월에는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전월 대비 6.3%포인트(p) 늘어난 약 35%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서울 내 30대 이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지난해 10월 35.4%(1만 1556건 중 4087건)에 이어 11월 35.1%(1만926건 중 3830건), 12월 33.5%

서울 내 30대 이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 비중 (단위: %)



(1만315건 중 3460건)를 각각 기록했다. 모두 35% 안팎의 기록으로, 올해 1월과 2월과 비교하면 5%p 이상 높은 수준을 이어간 바 있다.

이율러 30대 이하 청년층의 생애 첫 집 매수세 역시 지난해 반등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원 중 30대 이하 비중은 59.1%(3292건 중 1947

건)로 나타났다. 이는 2월 47.8%(3796건 중 1814건)보다 11.4%p 늘어난 규모다.

30대 이하의 서울 내 생애 첫 집 매수 비중은 지난해 12월 60.5%(3248건 중 1966건)에서 1월 56.3%(2762건 중 1555건)로 하락했고, 2월에는 50% 이하를 밀도는 등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매수세에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렇듯 올해 처음 포착된 2030세대 부동산 매수 비중 반전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회복세에 따른 ‘집값 바닥론’ 확산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 영향력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원

으로 전체 대출 중 79%를 차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청년층 매수세 유입은 일단 집값이 많이 하락한 뒤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 제일 크다”며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대출이 각종 규제에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그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매한 실수요자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내 청년층 주택 매수세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올해 주택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빌라 세입자 등 비아파트 거주자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부산 재건축 최대어’...사업비 1조4000억 육박 ‘연산5구역’

삼성·현대 등 대형사 수주 탐색전 돌입

올해 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연산5구역)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에 임하는 단계에 올랐다.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입찰 의사를 드러낸 상태로, 각 사의 자존심인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를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전을 앞두고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올해 6월 말 시공사 선정에 임할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2021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약 3년 만인 이달 5일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1986년 준공된 망미주공아파트는 총 23동, 20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 이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주는 약 2000명, 사업비는 약 1조4000억 원에

이달 5일 조합설립 인가 획득 “늦어도 8월말 시공사 선정” 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예고

육박하는 매머드급 사업지로, 규모만 보면 남천동 삼익비치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재건축 사업장이다.

연산5구역은 이처럼 뛰어난 사업성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대장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대형건설사들이 올해 역점 사업지로 이곳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수주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다.

조합은 이르면 올해 8월경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을 검토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조합설립 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단지 곳곳에 붙이고, 직원들이 주민을 접촉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주 탐색전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삼성물산은 입찰 의지를 밝히며 조합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상태로, 포트폴리오에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 쪽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도 조합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입찰할 경우 현대건설은 ‘디에이지’, 롯데건설은 ‘르엘’,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등 각 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DL이앤씨는 이미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조합 집행부에 제안한 상태다.

연산5구역 조합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 시공사 선정에 임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건설사 임원과 주택사업본부장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서울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서대문역 일대 100m 상업시설도 도시계획위, 정비계획안 통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한 서대문역 일대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은 최고 104.8m 높이의 업무·근린생활시설 건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1지구에는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하철 2·5호선 중정로역과 서측으로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이 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용적률 565%, 높이 79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지역 일대의 청년문화예술활동기반을 위한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3층이다. 지하 1층에는 연면적 약 300㎡의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투시도. 사진제공 서울시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지상 3층~23층에는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 중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래미안에선 이렇게 삽니다”...삼성물산, 체험형 전시 오픈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첫 시즌 전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래미안갤러리는 올해 ‘My RAEMIAN Experience’를 모티브로 고객 체험형 전시인 ‘RAEMIAN SWEET.ZIP’을 오픈했다. 전시와 함께 홈플랫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홈체험관’·청소년 교육 아카데미 ‘래미안 건축스쿨’ 등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7월 7일까지 진행된다.

봄 시즌 전시 RAEMIAN SWEET.ZIP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집이라는 주제로 공간을 구현했다. 행복한 집을 떠올



래미안갤러리 ‘마이 래미안 시티’ 전시 모습. 사진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

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로 꾸며둔 ‘스위트라운지’ 등 전시공간은 방문객들의 포토스팟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층 전시실에서는 상설체험 프로그램으로, 원베일리·첼리투스·부르즈칼리파 등 삼성물산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고객들이 직접 컬러링해 보고 영상에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마이래미안 시티’를 운영하고 있다.

유혜인 래미안갤러리 소장은 “래미안갤러리의 올해 목표는 My RAEMIAN Experience,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브랜드 체험관으로서 방문고객이 래미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체험, 강의 등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je@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올랐다

지난주와 같은 0.03% 상승 전국은 -0.02%로 낙폭 확대

서울과 그 외 지역 아파트값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은 4주 연속 올랐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낙폭이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오름세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번 주 전국 기준 변동률은 -0.02%로 전주 대비 -0.01% 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이에 전국 기준 내림세는 21주 연속 지속됐다. 수도권은 이번 주 포함(0.0%)으로 전주 대비 0.01%

p 내렸다. 지방은 -0.03%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 주 각각 0.05%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0.07%로 강세를 이어갔고, 마포구는 이번 주 0.08%로 지난주보다 0.01%p 올랐다. 반면 강북구는 -0.01%, 도봉구는 -0.03%, 노원구는 -0.01% 등으로 지난주에 이어 약세가 계속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급매 소진 이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단지 위주로 실거래가 이어지고, 매수 문의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2019년~올해 2월>

롤렉스·슈퍼카... 檢, 압수물 공매해 160억 국고 귀속

범죄 제공·취득한 물건 몰수 법원 판결 끝나면 檢 직접 공매 고가 압수물 온비드 통해 매각 서울중앙지검, 27억 국고로

최근 5년간 검찰이 압수해 공매로 국고에 납입한 액수 (단위: 만원)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 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검찰청의 형사증거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 대상이다. 확보된 유가 압수물은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이 직접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다. 무가물은 폐기처분한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판돈'은 검찰이 압수하고, 향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내리면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고가의 유가 압수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압수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매 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대행을 시작했다.

압수한 차량은 자정보관이 원칙이다.

법원에서 몰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검찰청에서 직접 보관하는 식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자정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보관할 수 있다.

압수차량을 위탁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는 법원에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면, 그때 차량을 공매하며 발생한 대금에서 처리한다.

검찰은 공매된 물건의 품목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 않지만, 2021년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유가 압수물 공매로 국고 납입한 일부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을 '경쟁입찰'로 일괄 매각한 뒤 국고에 납입했다. 시가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정가격을 정밀 조사한 뒤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각한 대

금은 2021년 10월 기준 1억2368만 원에 달했다.

고가 귀금속은 경쟁입찰이 아닌 온라인 공매로 개별 공매해 국고에 납입했다. 캠코 '온비드'를 활용한 것으로, 일반인 대상 입찰을 통해 최고가에 낙찰한다. 2021년 12월 롤렉스 데이토나, 리차드 밀, 오데마 피게 로얄오크 등 고가시계 총 3점이 4억7747만 원에 낙찰, 국고로 들어왔다.

2018~2020년 몰수선고된 벤츠 등 11대의 자동차도 민간 인터넷 자동차 공매 업체에 의뢰해 2억3700만 원을 국고 납입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슈퍼카 압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검찰 내에서도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수사관들이 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法 "징계사유 인정"... 류 "항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사진)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갑업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장정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했지만,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하자 경찰서장급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며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 사직했고, 올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서울야외도서관서 책 읽어오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을 시작한 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조성된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과 평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은 물론 청계천(책읽는 맑은 냇가)까지 총 3곳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하며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내 성인 10명 중 6명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어 "일 때문에 시간 없어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 읽은 책도 4권이 안 됐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결과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1년간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비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p), 0.6권 줄어들었다. 바꿔 말하면, 성인 57%는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종합독서량 36.0권으로 직전 조사 대비 각각 4.4%p, 1.6권 증가했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4.4%)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 (23.4%)라고 답했다.

나이와 소득별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20대 독서율(74.5%)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54.7%)과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9.8%)의 독서율도 격차가 컸다.

이날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송석주 기자 ssp@

최하 평가로 '직위해제' 직원...서울시, 직권면직 수순

코로나 재택 끝났는데 출근 거부 병가 결재 없이 6개월째 무단결근 교육 불참... 市, 인사위 참석 통보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 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나오라는 상사를 고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왔다.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한다.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들을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씨가 직위해제되기 전까지는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노조 반대와 공무원 특유의 온정주의가 합쳐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피스 빌런'을 숙여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당시 4명이 '가 평정'을 받았는데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해제를 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건어낸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는 인사위 출석 처분도 시보에 게재했다.

이번 인사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별인 직권면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7급 공무원의 경우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서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영 기자 ojung2@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24-321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민사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사체)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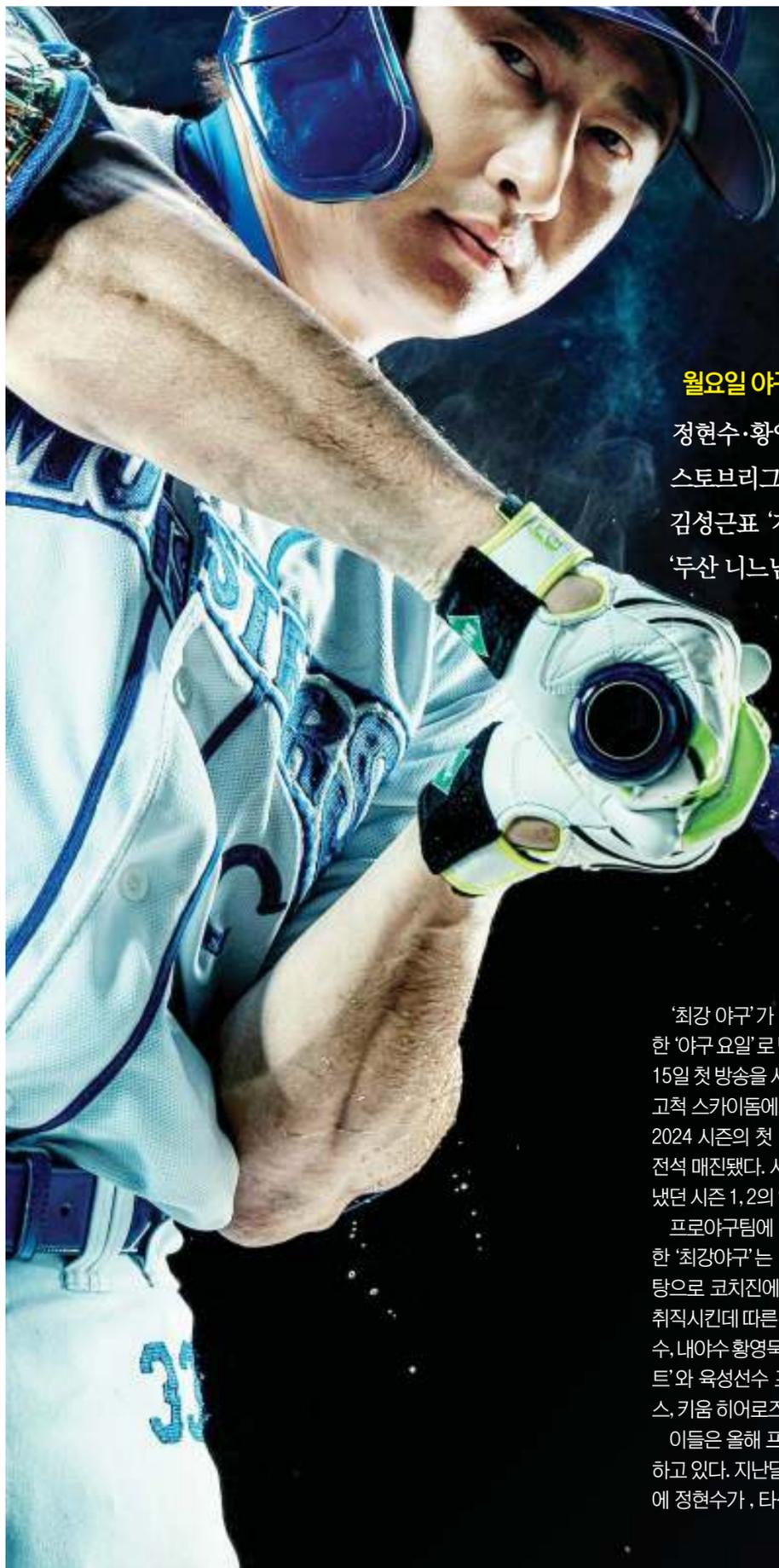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사망 일시	사망발견장소	처리 방법
안상남	1941. 08.10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구치길 66	2024. 04.0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30, 203호	화장 후 봉안

2. 사체의 발생상황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30, 203호, 204호, 301호~306호에서 발생함.

3. 사체처리 및 보관장소
가. 처리방법 : 화장(화장일 : 2024. 04. 11.)
나. 봉안장소 : 화장함백산부도공원 발발암터 (경기 화성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화장시 매송면 서해로 2448-32)

4. 공고기간 : 2024. 04. 17. ~ 2024. 05. 17. (17개월간)

5. 연락처 : 안산시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 (031) 481-8267



이름값하는 최강야구 몬스터즈가 돌아왔다

월요일 야구 부활, 시즌3가 기대되는 이유

정현수·황영목·고영우 프로行 '최강 입증' 스토브리그 담은 첫방, 은퇴 레전드들 잔류 김성근표 '지옥의 스프링캠프' 실력 다잡아 '두산 니스님' 니퍼트 등장... 첫 외인 멤버?



만들기도 했다. 결과는 황영목이 1루수 땅볼로 아웃당하며, 정현수가 전적 1:0으로 앞서 나갔다.

최강야구 팬들은 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최강야구'의 새 시즌과 새 선수, 그리고 기존 멤버들의 경기를 기다렸다. 앞서 방송에서는 '단장의 시간'으로 그려진 스토브리그, 연봉협상 과정을 통해 눈물바다를 이뤘다. 시즌2의 성적으로만 평가, 모든 멤버들이 A, B, C, D등급으로 나뉘어 PDI자 단장인 장 시원과 마주한 것이다.

다소 여유로웠던 A등급 선수들에 비해 C·D등급 선수들의 연봉협상 테이블은 적막과 회유, 읊소와 눈물의 향연이 펼쳐졌다.

다행히 젊은 선수들을 제외한 대다수 최강야구 선수들이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포수 이흥구 또한 이번 시즌에 합류했다. 장 단장은 이흥구가 발전된 실력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매년 연습에 나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봉 협상 이후에는 김성근표 훈련을 만날 수 있는 '스프링 캠프'가 펼쳐졌다. 김성근 감독은 훈련 전 선수들을 좁은 컨테이너에 집합시켜 목직한 말을 던졌다. 그는 "전처럼 아슬아슬하게 야구해서는 안된다"라며 "최강이라면 최강을 가슴에 갖고 살아라. 이니셜 M자에 자부심을 품고, 최강 속에 살아라"라고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면서 82세의 김성근 감독이 직접 러닝과 운동을 하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를 지켜본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시청자들도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한 시청자는 "세월을 이기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세월을 이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당한다는 그 뜨거운 진실이 와 닿은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 관문 '트라이아웃(선수 선발 테스트)'이 예고됐다. 지난 시즌 신재영, 정현수, 박재욱, 황영목, 원성준 등 주전 선수들이 대거 투입됐던 만큼 이번 '트라이아웃'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역 시절 통산 88승을 거두며 2023년 시즌까지 활약했던 송은범과 두산 베어스의 레전드 외인 투수 니퍼트가 등장할 것이라 예고에 벌써 반응이 뜨겁다. 등장만으로도 화제가 된 이들이 과연 '최강야구 시즌3'에 승선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정아 기자 jjong1006@

'최강 야구'가 다시 돌아왔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JTBC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는 1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시즌 3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 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고려대학교 야구부와 치르는 '최강야구' 2024 시즌의 첫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됐다. 시청률과 화제성 등에서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던 시즌 1, 2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다.

프로야구팀에 대적할 만한 11번째 구단을 표방하며 출범한 '최강야구'는 '취업야구'로도 불렸다.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코치진에 이어 다수 아마추어 선수를 프로야구단에 취직시키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강야구 시즌2'의 투수 정현수, 내야수 황영목, 고영우, 원성준이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와 육성선수 프로그램을 통해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키움 히어로즈에 각각 입단했다.

이들은 올해 프로야구 시즌에서 1군과 2군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한화와 롯데 시범경기에서는 마운드에 정현수가, 타석에 황영목이 들어서며 '최강야구 대결'을

민족의 슬기와 애환 담은 '방언' ... 그 역사 속으로

국립한글박물관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 팔도 방언 말맛·특징 소개... 이야기콘서트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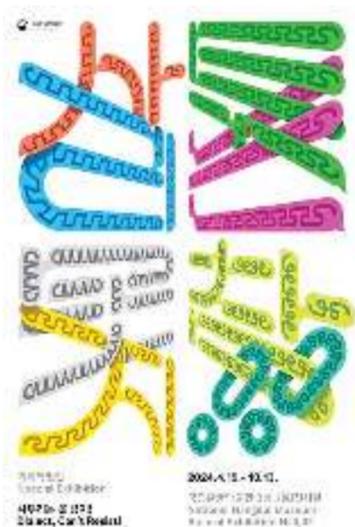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한글박물관은 '방언'을 주제로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방언의 다양성과 가치, 이를 보존하는 한글의 힘을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 '동학농민혁명군 한달문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1894), '감자' 초판본(1935), '제주도 방언집' 초판본(1947) 등 방언의 말맛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 294건(432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됐다. 1부 '이 땅의 말'에서는 옛 문헌 기록에서부터 현대의 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역 방언의 말맛과 특징을 소개한다.

2부 '풍경을 담은 말'에서는 방언 화자가 문학어로 꺼내어 손으로 쓴 방언과, 타지 사람이 귀로 듣고 기록한 방언을 통해 방언에 담긴 삶의 풍경을 살펴본다.

3부 '케어 모으는 말'에서는 방방곡곡 발로 뛰며 방언을 캐어 모은 여러 사람의 노력을 소개한다. 실제 방언 조사에 사용한 각종 장비와 기록물, 방언 지도, 다양한



방언 사전을 만나볼 수 있다.

방언 화자들의 언어를 생생하게 담은 전시 콘텐츠도 선보인다. 박물관 직원들은 서울 중구 토박이회를 찾아 '서울 토박이말'을 포착하고 그 특징을 영상으로 풀어냈다. '제주 해녀들의 삶과 말'을 살펴볼 수 있는 '삼촌의 바당' 영상도 제작했다.

방언 연구자이자 방언 화자인 이기갑, 충청도 출신 개그맨 김두영 등 팔도 화자들이 참여한 '같은 듯 다른 듯 경상도 사투리', '팔도의 말맛' 콘텐츠도 볼거리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문학 속 방언을 재해석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 편지, 실용서, 문학작품, 방언 조사 기록과 사전 등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으로서 한글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한다.

정보통신과 이동 수단 등의 발달로 지역 간, 문화 간 섞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방언 간 경계는 흐릿해지고 있다. 방언은 우리들의 입에서 생생하게 쓰이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특성이 변하거나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방언을 모으고 한글로 남겨두는 것

그자체가 언어문화를 보존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 방언을 살펴보면 국어 변화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후대에 전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자체가 지금 여기 우리말의 모습을 남기는 또 하나의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공연과 강연을 아우르는 '찾아가는 사투리 이야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강릉은 단오제 기간인 6월 10일, 제주는 탐라문화제 기간인 10월 6일 진행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장관 재임 시절 건립을 추진했던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을 널리 알리는 대표 기관으로 성장해 1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 콘텐츠이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들에게도 한국 구석구석을 보고 듣고 만나는 풍성한 전시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전시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송석주 기자 ssp@

“판단 주체는 사람… 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HMP LAW | 법무법인(유) 총정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로 발전하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총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총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 주체를 AI에게 양보하기는 정서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단 주체가 여전히 사람이고, 그 판단의 주체를 정서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은 당분간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만 31년을 채운 총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전통 강자’다. 헬스케어 최고 전문가 목근수(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환자들이 문제 삼은 각종 부작용 소송에서 제약사 다수를 대리하고 있다.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련 협회 규약 등 해석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30여 년 전부터 한국 MSD,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현재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대약품, 삼성메디슨 등 토종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들도 의뢰인이다.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1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만큼 ‘충성 고객’이 많다는 강점을 지녔다.

외국 기업 고객이 많다는 점 또한 특징인데 해외 법인을 상대로 한 업무가 많다 보니 해외 우수 로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국외 법률이슈를 문의하면 외국계 로펌들을 활용해 의견을 확인하는 등 ‘아웃 바운드’ 해외 법무에 강하다.

◇외국계 우수 로펌들과 협업… 해외 법무도 강해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적응해 새로운 30년을 대비하고자 총정은 지난해 4월 40대 젊은 기수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 총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총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총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며 “그러나 법인 내부적으로 양적 성장 요구가 꾸준히 있어 전문가 영입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총괄 대표 변호사 1년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 등 6개에 달하는 검증된 전문가 팀을 추가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외연 확장을 추진했다. 김 총괄 대표는 이날 “총정에 대한 외부 평가는 특히 자문 업무에 강하다는 것”이라며 “송무 경험이 자문업 의견에 반영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자문 업무 역시 한층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에서 송무까지…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

그는 당초 자문을 하다가 소송까지 수행하게 된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금융회사 이사 겸 감사위원이 이사직은 유지한 채 감사위원에서만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총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김시주 총괄 대표는

△1975년 10월 서울 출생 △1999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6년 4월 법무법인(유한) 총정 입사 △2023년 4월 ~ 현재 법무법인(유한) 총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40대 젊은피” 김 대표, 미래 30년 선봉 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 6개 전문팀 영입 등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 ‘창사 31년’ 총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 ‘아웃 바운드’ 해외 법무 경쟁력도 갖춰 ‘수평적 조직문화 통해 업무·실적 시너지’



패소했고 연말에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상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변호사 여럿이 이사 해임의 법리를 구성·개발했다”면서 “그렇게 마련된 법리를 소송 서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사가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송무 역시 그 분야에 걸 맞는 소송 경험과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며 “로펌에 있어 송무 비중은 더 커지고 중요해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정은 송무 전문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고 교육을 병행해 송무 부문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총괄 대표는 “총정은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조직원들의 다양성과 자율을 존중한다”며 “수년 전부터 팀 간 장벽을 허물고 업무별로 최적의 전문가들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유연하게 업무 처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업과 협업으로 능률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후배 또는 구성원 간 격 없는 의견 교환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은 물론 업무 만족도를 끌어 올려 회사 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낀다면, 결국 회사 실적과도 연결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혔다.

백일경 기자 ekpark@

법무법인(유) 총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 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

법무법인(유한) 총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총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총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존 팀인 기업자문, 금융, 송무(訟務) 등에서 파산·회생 업무와 관계된 전문가들을 따로 모아 신설했다.

파산팀은 기업송무팀 안종석(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기업자문팀 김시주(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팀 송무 담당 조광희(변호사시험 5회)·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 김상준 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파산·회생 업무 전반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총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연과 함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자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산·회생 신청 대리 및 파산·회생 관련 자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총정 파산팀은 2년이란 비교적 짧은 운영 기간에도 괄목할 성장세로 주목받는다. 총정 파산팀은 해마다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해 수십 건에 달하는 파산·회생 신청을 하거나 별제권 채권 행사 등 절차 내 권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항공·車 등 전 산업군 포괄 고객 수요 사전예측 ‘원스톱’ 자문

파산팀 주요 고객으로는 우리나라 대형 타이어 기업, 차량용 부품 회사, 공항공사, 굴지 국책은행, 유럽 산업용 장비 회사, 중동 금융기관 등 굵직한 의뢰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항공사 회생 절차, 건설사 파산 절차, 자동차 제작사 회생 절차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송·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파산·회생 신청 등 파산·회생 사건 대리뿐 아니라 파산·회생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파산 또는 회생 가운데 어떠한 절차가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부터 거래처 경영 상태를 우려하며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를 상정하고 그 이전에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한다. 아울러 도산 절차 내에서의 채권회수 방법, 도산 절차 참여 포기 시 불이익 등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솔루션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백일경 기자 ekpark@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전북전주시 '경기전·전동성당·풍남문'

맛과 멋의 향연... '전주 한옥마을' 오감 유혹 즐긴다

조선시대 '타임슬립'에 흠뻑 빠진다

햇살 좋은 봄날, 전주한옥마을에 사람들이 그득하다. 내로라하는 관광 명소답다. 지난 한 해에 찾아온 관광객이 자그마치 1500만여 명이었다니 말 다했다. 한나절의 눈요기와 입욕기만으로도 전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길 마다 않고 달려오는 이들이 많다. 한때 상흔에 치우쳤다는 핀잔도 들었다. 그러나 문화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이 늘어 균형이 잡혔다. 바야흐로 문화 요소를 결합한 관광지는 찬밥 신세로 추락하기 쉬운 시대다. 사실 전주 한옥마을엔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달걀노른자처럼 박혀 있다. 겉은 상업의 성황으로 요란하지만, 속엔 역사 유산의 광량이 깃들어 찬연하다.



인터뷰 나종우 전주문화원장

“외지인을 격의없이 품는 ‘전주’
예부터 ‘너와 나는 하나’ 인식
그 특유의 포용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흔히 말하는 대로 ‘맛과 멋의 고장’이다. 고유한 음식 문화와 예술의 발달로 형성된 멋을 빼놓고 전주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맛과 멋’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과거의 경제적 여유에 그 근원이 있다. 전주는 농산물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농업지대였다.”

나종우 전주문화원장의 얘기다. 먹거리 풍부한 곡창지대였던 데서 전주의 문화와 정서가 토착화됐다는 뜻이다. 전주는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에 의해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통으로 이어진 문화와 예술의 파워 역시 타 도시를 능가한다. 나 원장의 얘기는 전주 사람들의 ‘포용력’에 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이어진다. 그는 원광대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전주 사람들은 외지인을 격의 없이 품는다. 예부터 ‘더불어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풍토가 여신했다. 이는 전주만이 아니라 호남권의 보편적 경향이였다. 가령 고창읍성을 축조할 때 전라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힘을 보탤다.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인식. 거기에서 나온 포용력. 이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과거 전통사회에선 양반들의 지배 문화가 횡행했다. 호남권의 서민 문화는 어떠했다고 보나

“전라도에선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 예컨대 호남엔 농부들이 일하다가 모여 쉬는 모정(茅亭)이 매우 흔했다. 이는 사대부들이 즐긴 누각 문화가 발달했던 영남권과 다른 양상이다. 임진왜란에 뛰어들어 나라를 지켜낸 서민 출신 의병이 유독 많은 곳도 호남이다. 일찍이 발달한 서민 문화가 민중의식의 싹을 틔웠고, 그게 동학혁명 같은 민권운동으로, 나아가 민주주의식으로 발화했다. 전주 특유의 ‘포용력’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 세상은 이기적인 경쟁과 과욕이 만연해 식막하다. 전주라고 예외일까
“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힘에 좌우되며 돌아간다. 전주엔 좌절감에 가까운 정치적 소외감이라는 게 있다. 넉넉한 전통적 정서와 자긍심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문화의 힘, 문화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 문화원은 지역의 뿌리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쓸모 있는 책자들을 다수 발간했다. 전통문화를 현대적 매력으로 승화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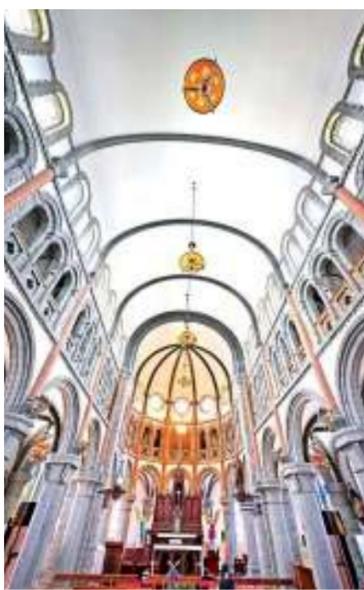
-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실로 많다. 한옥마을의 역사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면

“항일의식의 발현으로 한옥마을이 형성된 배경을 알면 좋겠다. 일제강점기 때 전주엔 일본인이 대거 유입돼 집을 짓고 살았다. 전주가 통째 일본인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전주의 뜻있는 부자들이 나서서 한옥다수를 지으며 대응했다. 이렇듯 전주를 지키자는 민의의 힘으로 형성된 게 한옥마을이다.”

경기전 내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4대 사고(史庫)의 하나인 전주 사고가 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을 모면하고 유일하게 실록을 보존한 사고다. 전주의 선비와 머슴들이 필사적으로 실록을 지켜낸 덕분이었다. 나 원장은 이 역시 전주의 빛나는 역사 대목으로 꼽았다.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전(慶基殿)으로 들어선다. 이곳은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어진(御眞, 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한 공간이다.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1410년에 지었다. 천하를 호령한 절대 권력자를 그린 어진은 단순한 추모의 수단이 아니었다. 임금 자체가 주체로 간주됐다. 어진이 있는 곳엔 임금이 머문 것과 맞먹는 수준의 위상이 부여됐다. 왕실의 영속을 기원하는 성역이었다. 따라서 경기전의 규모부터 웅장하다. 우람한 나무들과 대밭이 있는 정원은 운동장처럼 넓적이다. 경기전의 핵심은 공간 중앙부에 조성된 정전(正殿) 구역이다. 홍살문으로 들어가 외삼문(外三門)과 내삼문(內三門)을 통과하자 본전인 정전에 닿는다.



이성계 어진 봉안한 ‘경기전’

태조 제례 거행하는 ‘왕실사당’ ‘火魔’막는 2가지 ‘벽사장치’ 눈길 초상화엔 혁명 군주 기백 느껴져

호남 최초의 서양풍 건물 ‘전동성당’ 유려한 건축미에 저절로 이끌리고 몸과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 하지만, 순교자 터에 지은 성소

리에 담아 정전 뒤편에 묻었다. 어진에 드러나는 태조의 모습을 볼까. 그의 실제 키가 180cm에 달했다던가. 초상을 척 봐도 기골이 장대하다. 청색 곤룡포를 입고 바위처럼 묵직하게 앉아 정면을 응시한 틀거지에 포스가 넘친다. 혁명 군주다운 도도한 기상을 테마로 삼아 초상을 그린 것 같다. 곤룡포와 용상엔 용틀임하는 금빛 용들을 연쇄적으로 집어넣어 군왕의 위엄을 돋우었다. 능란하게 휘저은 붓놀림의 자취도 볼 만하다. 색조를 달리한 배색으로 얼굴에 음영을 넣어 살짝 입체감을 살렸다. 오른쪽 눈썹 위에 묘사한 사마귀는 이 어진이 리얼리티에 충실한 그림임을 알게 한다.

풍남문에 걸렸던 순교자들의 머리

경기전 건너편엔 ‘호남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라는 전동성당이 있다. 경기전 답사를 마친 사람들의 발길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전동성당으로 이어진

다. 저만치서 바라보이는 돔 부위만으로도 아름다워 자력에 끌린 양 성당 정문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성당과 마주하기에 이르면 이전 심취하게 마련이다. 전동성당의 완벽한 건축미에 반해서. 성당의 고고한 내면성이 느껴져서. 건축가 김광현에 따르면 전동성당은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롱상 성당이나 독일 뉘른에 있는 성안나 성당보다 ‘훨씬 영성적’이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나로서는 감히 영성까지 운운하기 어렵지만, 유려한 건축미에서린 깊고 따듯하고 순수한 기운에 몸과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전동성당의 외벽은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을 배합해 쌓았다. 1908년에 착공, 23년에 걸친 공사로 완성했으니 100여 년 세월이 내려앉은 건물이다. 그러나 세련된 건축 메커니즘과 정교한 디자인이 빼어나고 색을 느끼긴 어렵다. 이 성당이 야기하는 미감은 정면 중앙에 높이 솟은 종탑부와 양쪽 계단 탑의 등에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성당 내부도 화려하고 장엄하다. 궁륭형 천장의 곡선이 흘러내린 아래편 좌우에 펼쳐진 감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어머니의 체온처럼 따사롭다. 성당을 떠날 땐 기둥 행렬, 수평 또는 수직으로 펼쳐진 벽돌 벽돌, 신비감과 안락감을 풍기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등도 빼어나다.

전동성당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순교의 피와 열이 배어 있는 터에 세운 성소라는데 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이 신유박해 때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전동성당 코앞엔 풍남문이 있다. 전주의 역사성을 웅변하는 성문으로 반월형 웅성(甕城)이다. 원래 전주성엔 동서남북으로 4대문이 있었지만 풍남문만 남았다. 전주성은 고려 말 1389년에 전라관찰사 최유경이 주도해 지었다. 그는 전주성에서 우거진 축성 솜씨로 승례문(남대문)을 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동성당과 풍남문은 불행한 역사를 공유했다. 효수를 당한 윤지충과 권상연의 머리가 풍남문에 걸렸던 게 아닌가. 한편 순교터에 전동성당을 지을 때엔 풍남문의 허물어진 성벽 돌들이 성당의 주춧돌로 쓰였다. 굳센 신앙은 세상의 잔인함에 패하지 않는 법. 순교자들의 영혼은 성벽 돌에 얹혀 마침내 전동성당을 이루었다. 성당 사방으로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햇살이 쏟아진다. 천지가 유독 환하다.

글/ 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읍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신동빈 회장, '미래 먹거리' 주도권 확보 광폭 행보

〈롯데그룹〉

청주 전기차 충전기 공장 이어
말레이 이차전지 소재공장 찾아
바이오·메타버스·수소·이차전지
4대 신성장 사업 '선택과 집중'
17년 이끌던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직 물리나며 경영 집중 의지



신동빈(왼쪽 네 번째) 롯데 회장이 17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위치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스마트팩토리에서 생산을 마친 동박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지주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동박 생산라인 임직원들을 찾았다. 신회장은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 공장을 잇달아 찾으며 현장 점검과 새 먹거리 찾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그룹의 현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판단, 17년간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온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Asia Society Korea)' 회장직도 최근 돌연 내려놓고 본업인 경영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18일 롯데그룹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전날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 소재 롯

데에너지머티리얼스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는 지난달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인 이브이시스(EVSIS)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챙기던 데 이어 신사업 경영 행보의 일환이다. 이번 일정에는 이훈기 롯데화학군 총괄대표와 김연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대표이사가 동행했다.

신회장이 방문한 말레이시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스마트팩토리는 2019년부터 이차전지 주재료 중 하나인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이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사용된

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8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는 작년 말 말레이시아에 5공장과 6공장을 준공해 연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롯데의 말레이시아 내 동박 생산 규모는 기존보다 2만 톤(t) 늘어 연간 6만 톤에 이르게 됐다. 이는 롯데그룹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다.

롯데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동박 생산량을 확대하는 한편 말레이시아를 향후 해외 진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말레이시아와 전북 익산에 생산시설을 가동한 데 이어 향후 유

럽·북미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에 동박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회장이 이처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4대 신성장 사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신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4대 신성장 사업(바이오·메타버스·수소에너지·이차전지)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의 미래 신사업에 대한 각오는 17년간 맡아왔던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 회장직 사임 결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는 국제 민간교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의 한국지사로, 그간 한·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맡아왔다. 신회장은 최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 회장직을 전면에 내걸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신 회장은 최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회장직 사임의사를 이 단체에 전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는 이를 수용한 직후 회장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해산하기로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대한상의 한-말레이경협위원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위촉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이우현<사진> OCI홀딩스 회장을 위촉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 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투자 및 무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위원회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합동 회의, 사절단의 상호 방문, 주요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의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왔다.

OCI홀딩스는 2017년 일본의 화학기업 도쿠야마의 생산법인을 인수하며 말레이시아 사라왁주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지의 친환경 수력발전소를 기반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연간 약 3만 5000톤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 말레이시아 지역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말레이시아 내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으며 현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및 양국 문화교류도 앞장서고 있다.

이우현 신임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말레이시아 경협위가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의 협력 방향을 지속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및 정책당국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한·호·뉴 제약총괄 리드 선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사노피)은 한국 및 호주·뉴질랜드 제약총괄 다국가 리드로 배경은<사진> 대표가 선임됐다고 18일 밝혔다.



배 대표는 2013년부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노피 한국법인 컨트리 리드를 역임했다. 배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알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글로벌 매니지먼트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글로벌 제약사에서 사업부 총책임자, 미국 지역 글로벌 프로젝트 디렉터, 항암제·전문약품 사업부 총괄,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사노피 그룹의 희귀질환 사업부인(주)젠자임코리아 대표로 선임된 후, 2013년부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및 사노피 한국법인의 컨트리 리드를 맡아 역임해왔다. 최근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KRPIA) 제15대 회장에 선임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캠코 '개인정보관리 진단' S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권남주<사진 가운데>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캠코

KT 희망나눔인상 '소울베이커리'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27년간 일자리 창출로 발달장애인 자립을 도운 '소울 베이커리' <사진>가 올해 두 번째 희망나눔인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소울베이커리는 1997년 설립된 경기도 고양시 애덕의집 보호작업장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고 노숙인·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tswin@·사진제공 KT

기아, 카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 수상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 인정

기아가 '2024 카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기아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ADI 디자인 박물관에서 진행된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카 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지인 '오토 앤드 디자인'이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 국가의

제명한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자동차 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한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비전에 발맞춰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EV9, EV6 등 완성도 높은 차량 라인업을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 방향성을 지속 커뮤니케이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아의 디자인 영향력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부사장이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

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디자이너의 열정과 몰입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이환주 이사장 “선한 영향력으로 나눔의 정신 일깨워야”

KB라이프사회공헌재단 발대식

이환주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18일 “(KB라이프생명·KB라이프파트너스·KB골든라이프케어) 모든 구성원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라이프의 재단법인인 KB라이프생

명사회공헌재단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라이프타워 KB스타홀에서 올해 사회공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2024 KB라이프 사회공헌 발대식'을 진행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나눔을 나뉘듯,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KB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KB골든라이프케어 3사 임직원이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



다. 특히 지난해 KB라이프생명의 새 식구가 된 KB골든라이프케어 임직원이 참여한 첫 사회공헌 발대식을 가졌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KB라이프생명

'플레랑스' 역설... '빠리의 택시운전사' 흥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

책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흥세화<사진> 한국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이날 장발장은행 측에 따르면, 고인은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던 중 이날 정오쯤 숨졌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3월

무역회사 해외지사 근무 차 유럽에 갔다가 남민전 사건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파리에 정착했다. 20여 년간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등 힘겨운 이방인 생활을 했다.

그는 1995년 파리의 생활을 담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출간해 '플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을 설파했다. 상식적인 배려와 용인의 미덕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했다. 생전 그는 한겨레 기획위원, 드몽드 디



플로마티크 한국어판 편집인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는 비영리단체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을 맡아 별금 미납으로 옥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선 사업을 펴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썰노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빨간 신호등'이 있다.

송석주 기자 ssp@

인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상무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화 <전보> ◇상무 △OCIO솔루션본부장 강민훈
◆도브트래빗 △전무 최상운

문학의 쫓

속씨식물은 보통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지만, 오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핀다. 그래서 오이는 외롭다. 외로울고(孤)에도 오이의 한자인 과(瓜)가 들어앉아 있다. 경상도에서는 오이를 외라고 한다. 외아들, 외골수, 외롭다 할 때의 그 '외'다. 외는 오이가 축약된 것일 게다.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그런데 이보다 더 외로운 것이 있다. 오이의 사촌, 참외(眞瓜, 참+오이)다. 참기름, 참사랑, 참뽕의 그 '참'이다. 공교롭게 영어로도 '멜론(me+lon, 나홀로)'이니 참외는 참말로, 진짜로, 외롭고도 적극적인 과실이다. 외가 비와 바람, 어둠과 땀별을 맞으며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 길만이 안에서 익어가는 성숙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성숙에 이르려면 곁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필요하다. 신화 속의 주인공들도

수준에 이른 고려청자의 빛깔에 대한 언급이다. 갓맑은 하늘빛(비색)에 초연함과 은둔을 희구하는 고려인들의 마음이 투영되었을 것이라.

조선에도 외로움을 벗한 이가 있었다. 경주 양동에서 출생한 회재 이언적은 이항, 이이, 송시열 등과 더불어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문묘종사, 정치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종묘배향을 동시에 이룬 인물이다. 그에게도 영육의 세월이 있어, 마흔 살에 정쟁에서 패하여 낙향했다. 그는 고향집이 아닌 인근의 안강으로 가서 지냈다.

사랑채인 독락당(獨樂堂)은 북송의 학자 사마광이 은거했던 독락원(獨樂園)에서 따온 것이다. "귀도 눈도 폐도 장도 모두 내 소유일지니 홀로 거칠 것 없이 넓구나. 모르겠지만, 천하에 또 어

달콤한 속내를 잉태하는...

고독한 역경을 통해 영웅으로 거듭난다. 달콤한 속내를 잉태하기 위해 외로움을 견디는 것, 그것이 외의 삶이다.

고려 인조의 능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오는 청자들 중 참외모양의 병이 있다. 활짝 핀 꽃모양의 주둥이에 가느다란 목이 이어지고 이내 탐스러운 참외모양의 몸통으로 변했다간 급격히 잘록해지면서 주름으로 장식된 굽으로 이어진다. 코카콜라 병이 허블스커트 차림의 여체를 연상시키듯이 이 병 또한 아래쪽이 좁은 주름치마를 연상시킨다. 언뜻 관능을 일깨우는 몸매, 단정한 질서와 비례, 잿빛이 감도는 푸른색이 맑게 빛난다.

고려를 방문했던 북송(北宋)의 서긍은 고려의 문물에 대한 인상을 '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으로 남겼다. 이 책에 "고려인들은 청색도기를 일컬어 비색이라고 부른다"라는 대목이 있다. 남송(南宋)의 태평노인은 '수증금'에서 "고려비색 천하제일"이라고 기술하였는데, 고려비색이란 바로, 당시 최고

편 즐거움이 있어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여 이를 '독락'이라 한다."

'맹자'의 '진심'에는 "옛날의 여진 선비인들 어찌 그럴지 않았겠는가. 자신의 도(道)를 즐기고 남의 권세는 잊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회재의 도는 학문이다. 은거하며 학문을 즐기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명분이자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외로움이 싫어 '흥정거림'이나 '굉란의 불금'을 좇는다. 확장과 속도가 대세인 시절, 인간관계 역시 확장에 힘쓴다. 시장과 미디어도 가세한다. 외로울 땀 누군가와 수다를 떨면 우울감이 감소된다. 엔드르핀 분비가 촉진되어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통은 감소되지만 외로움의 근본 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요히 침잠하며 자신에게 집중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발적인 '왕따'도 괜찮다.

외롭다면, 아니 심심하다면 방에앉아 참외 한 조각을 와삭 깨물어 볼 일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바이런 명언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영국 낭만파 천재 시인. 미남인 젊은 독신 귀족이라 런던 사교계의 총아로 등장했다. 주요작품은 '카인' '사르다나팔루스' '코린트의 포위' 등이 있다. 그의 비통한 서정, 습속에 대한 반골(反骨), 날카로운 풍자, 근대적인 내적 고뇌, 다채로운 서간 등은 전 유럽을 풍미하기도 했다. 오늘은 그가 생을 마감한 날. 1788-1824.

☆ 고사성어 / 권상요목(勸上搖木)

위로 오를 것을 권한 다음 나무를 흔들어서 대는 모습. 앞에서는 잘한다고 부추기고 막상 그렇게 하면 배신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조선 중기 명종, 선조 때의 영의정 이양원(李陽元, 1526-1592)이 쓴 시에 나온다. "높으나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이 보오 벗님네야 흔들지나 말았으면/떨어져 죽기는 싫지 않아도 님 못 볼까 하노라." 임

진왜란으로 선조가 피란 간 뒤 한양을 지켰던 그는 임금이 의주를 버리고 요동 땅으로 갔다는 소문이 들리자 임금이나 나라를 버렸다는 수치심에 단식을 시작, 8일 만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뒀다.

☆ 시사상식 / 라스트 마일(Last Mile)

마라톤과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목표에 이르기 직전의 최종 구간을 뜻한다. 최근 금융 시장에서는 2%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구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마지막 구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자주 사용한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인플레이션을 10.6%에서 2.9%로 낮추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여기서 2%로 더 낮추려면 두 배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것이 라스트 마일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살 연구소장

이슈&인물

논이자수의 확대에 '박차' 김 용 옥 NH농협은행 부행장

“고객관점서 자산관리 꽃 피울 것”

“경제 상황이 혼란하거나 평온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도 은행원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과 수요자 관점에서 상품을 권유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김용옥 NH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본부장은 최근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과 금융시장 상황에서 은행 자산관리부의 역할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과거 은행 중심의 상품 판매를 벗어나 고객 상황에 알맞은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본지는 18일 시중은행 간 치열한 부동산 자산관리(WM) 서비스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의 WM사업과 신탁, 퇴직연금, 주택임대 등을 총괄하는 김 부행장을 만나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자산관리 방향과 장기 계획 등을 들었다.

◇‘ALL100자문센터’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김 부행장은 WM사업부 업무와 관련해 부동산 자산관리 비중이 갈수록 중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부행장은 “WM서비스는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은행 내부에서도 핵심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중요 서비스”라며 “대한민국은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때문에 부동산 관리와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자산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분석에 따르면 자산가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56.2%로 조사됐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일수록 부동산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자산관리 방향을 개인보다 가족(가문)에 초점을 맞춰 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선 투자와 함께 상속과 증여 방향까지 미리 설계하는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김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WM사업부 내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ALL100자문센터’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연관성이 크다. 고객에게 해당 센터의 부동산 전문위원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가치와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행장은 WM사업과 함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법인 고객의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육이나 공장 매매·보유·관리, 기업승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김 부행장은 “우리는 기업 부동산



김용옥 NH농협은행 부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부행장실에서 열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금융 투자에는 원칙준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을 포함한 기업금융관리 분야 후발주자지만, 지역 기반 기업과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4년 연속으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는 지역 재무자 최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지역 내 영업 활동을 진행 중이다. 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금융관리 강화해 수익기반 확대할 것- 그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기업 사육 또는 공장 신축 등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과 함께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을 활용해 법인과 개인을 연계한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중심→고객위주 투자로 전환 고객자산 부동산 집중 “시장 몰라” 세무·상속컨설팅 수요확대에 대응

동시에 기업금융관리를 위한 ‘RWM’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WM은 기업금융(RM)과 자산관리(WM)의 합성어로 기업 부동산 자문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신설한 서비스다. NH농협은행은 기존 WM 교육에 RM 교육을 추가해 시행 중이다. 기업금융관리에서 부동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금융 분야와 함께 기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부행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금리’ 변동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행장은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핵심”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 등 불안정한 세계경제 때문에 금리는 하락하지 못하고, 유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변수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부행장은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 등락 폭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금리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채권 금리 변화에 연동돼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행장은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안정성을 택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금리가 높은 편이므로 투자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저평가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행장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이므로 투자상품 자산관리부의 ‘원칙 준수’를 거듭 언급했다. 김 부행장은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평온하거나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고객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금융사도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상품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 고객이 싫어하면 ‘짱’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31년째 근무 중-농협서 잔뼈 굵은 ‘농협맨’= 끝으로 김 부행장은 “우리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고객 의사결정 방향성을 제안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ALL100자문센터의 전폭적 지원으로 고객 자산관리의 꽃을 피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행장은 강원 삼척시 출생으로 강릉고를 졸업한 뒤 강원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올해까지 31년째 근무 중인 ‘농협맨’이다. 2020년 기술금융담당, 2021년 준법감시부장을 거쳐 2022년 강원본부 부행장을 역임했다. 지난 1월부터 투자상품 자산관리부 부행장직을 수행 중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약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 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인지도를 높였다. 알리는 천만 관객 영화의 주연 배우로 인기 절정인 마동석 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직구, 형이 싸 싸 싸 싸 싸'라는 문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알리와 테무는 광고뿐 아니라 판촉에도 물량을 퍼부어 소비자를 유혹한다. '천억' '십억'과 같은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자금을 쏟아붓는 알리의 공세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맞대응하지만 역부족이다.

중국 쇼핑 앱의 최대 무기는 초저가 판매이다. 광고로 앱을 알리고 판촉으로 소비자가입을 유도한 다음에 구매하게 만드는 비결은 파격적인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대가 국내 판매가의 5

분의 1에서 10분의 1의 파격적 수준이다.

전방위 마케팅과 초저가 덕분에 중국 직구 앱의 사용자는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로 알리가 887만 명, 테무가 830만 명에 달한다. 종합몰 앱 순위로 11번가, G마켓, 티몬, 위메프를 제치고 쿠팡 다음에 2, 3위를 알리와 테무가 차지한다.

중국 직구 앱의 초저가 공세가 국내 시장과 산업에 타격을 주어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크게 피해 보는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중간상이 될 것이다. 중국산 직구 제품과 유사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피해를 볼 것이다.

중국 직구 앱이 소상공인이나 오프라인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쿠팡 등의 온라인 이커머스가 쓸고 간 자리에 후발로 진입한 중국 이커머스가 잠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국 쇼핑앱의 직접적 경쟁상대는 한국 이커머스가 될 것이다. 이미 사용자 수에서 밀린 11번가, G마켓, 티몬, 위메프 등은 치명적 타격을

논현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경영학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쿠팡이 최근에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58%나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사례로, 중국 쇼핑 앱과 같은 신규 경쟁자가 진입해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장비구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중국 쇼핑 앱의 초저가 정책을 환영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은 가계를 압박한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리와 테무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물가 안정이 절

필하다는 증거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국 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가능한지 또 필요한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이커머스 업체와 이에 입점한 해외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제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통해 품질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국 쇼핑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 앱을 써보고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산 제품 중심의 직구에 한정되고 품질과 서비스가 열악한 중국 쇼핑 앱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앞으로 국산 제품의 취급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과연 시작이 창대한 중국 쇼핑 앱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떨칠지 궁금하다. 메기가 되어 시장을 활성화할지 공룡이 되어 시장을 지배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

품질·서비스 열악... 시장영향 한계

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피야

한 톨



때 이른 더위에 '물만난' 동심

벚꽃잎이 떨어지기 무섭게 봄에 어울리지 않는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다.

봄의 마지막 절기이자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을 이롭게 한다는 곡우(穀雨)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절기가 무색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관측 이래 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아이

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물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상청은 "강한 햇볕이 쏟아지며 열기가 누적된 가운데 한반도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와 이 같은 고온 현상이 발생했다"며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고 예보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전공의 약 1만2000명 중 93%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환자를 내팽개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임의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60대가 병원 6곳에서 받아주지 않아 사망했다. 부산에서도 50대가 10곳 이상의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 모두 대동맥박리 질환의 초음파 상황이었다고 한다. 충북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의료계 주장대로 전공의 이탈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허망하게 숨지는 사례가 줄을 잇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술이 미뤄지는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공포의 날이다. 난산 증상을 보이는 산모들은 자신은 물론 태어날 아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강대강' 대처 양상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날한 덕수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

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넘쳐난다.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다.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입시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관련 학적을 개정해야 할 전국 주요 대학들이 과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이다. 전국 고교들은 덩달아 입시상담을 포기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입시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도 큰 것이다.

시간만 끌어서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찾아야 한다. 눈과 귀는 크게 열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긍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협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민심이 하늘이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답을 구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다다익선' 아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 취업준비생의 '스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채용심사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할 확율을 높이는 수단이다. 대부분 취업준비생이 각종 외국어 및 자격시험 점수부터 인턴 활동 등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교육개혁은 어떨까. 교육개혁 자체는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AI·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일종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입시이다. 입시 제도는 바뀔수록 혼란이 커진다. 한 입시전문가는 "사실 교육 정책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건드릴수록 입시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불안해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찾는 부작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노트북 너머

정유정
사회경제부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으로 입시 지형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년 연속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정원 등은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니다. 교육개혁도 입시업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유념해야 된다. 그간 정부가 대입 전형의 틀을 4년 전에 미리 공개하는 '대입 4년 예고제'를 마련해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oiljung@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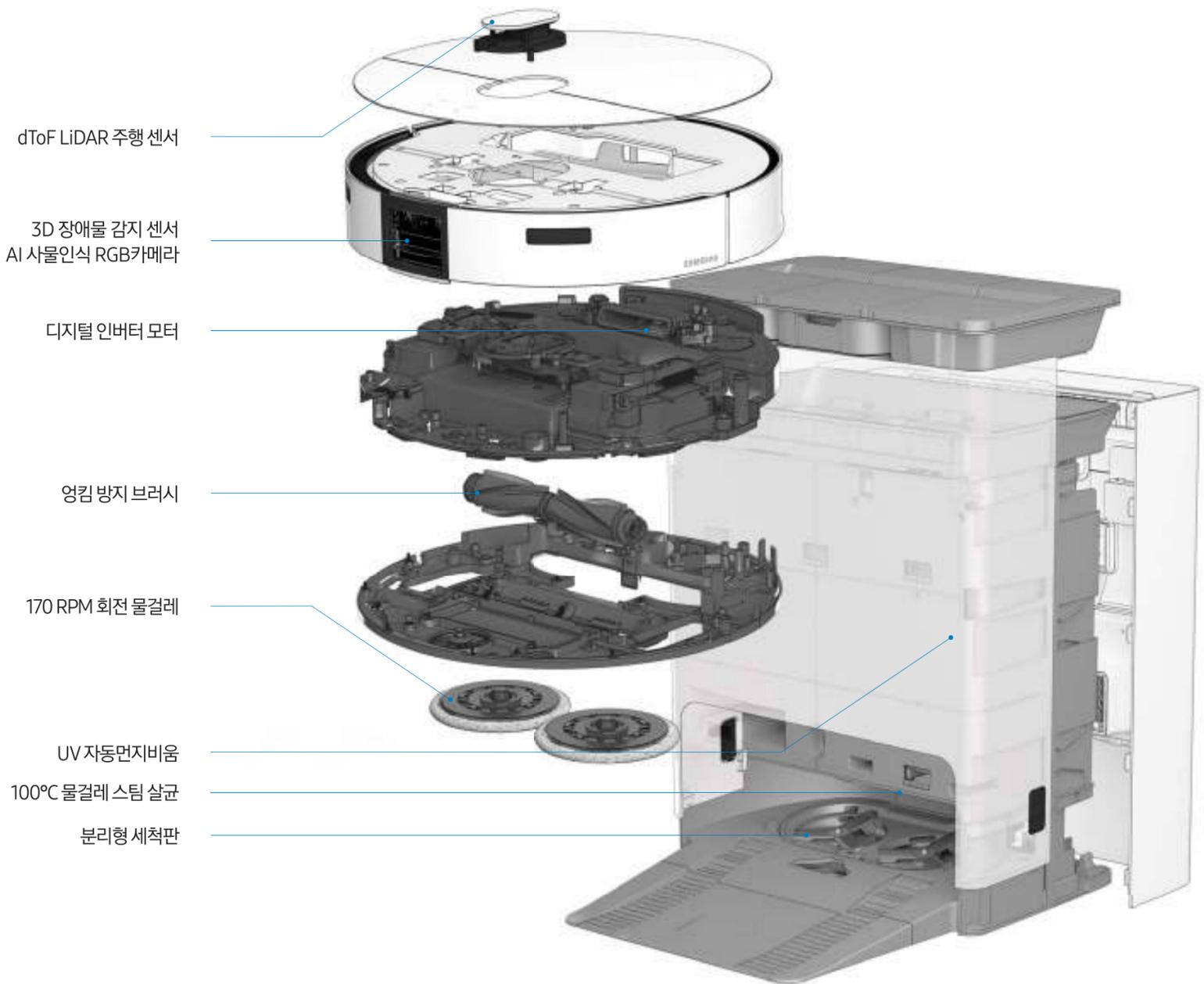
SAMSUNG

AI로 알아서 똑똑하게
*BESPOKE AI 스팀 일부 모델에 한함

BESPOKE AI 스팀

나에게 딱 맞춘 가전

스팀살균이 물걸레 냄새까지 싹!



로봇 청소기에 바라던 모든 것이, 마침내



BESPOKE AI 스팀
멤버서더 신청하러 가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임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BESPOKE AI 스팀 일부 모델에 한함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